

# 고분가



[해제]

<고분가>는 작자 및 창작연대가 불분명한 순국문 가사작품이다. 『고분가』(29\*31cm)라는 제목의 전적(典籍)에는 <고분가> 외에도 <화설>이라는 제목의 소설 작품이 수록되어 있다. <고분가>라는 가사의 제목은 ‘혼자 분해서 부르는 노래’라는 뜻으로 작품의 내용 역시 제목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외로운 신세를 한탄하며 분노를 표출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있다. <고분가>는 불과 열 살이 되던 해에 부모를 모두 잃고, 홀로 어렵게 자랐던 화자가 20세가 되어 백년가약을 맺고, 아들, 딸을 낳아 아내와 함께 행복하게 사나 했더니 그 아내마저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됨에 또 다시 홀로남아 자식과 가정을 이끌어가게 된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는 내용으로 시작된다. 작년과 다름없이 피는 꽃을 보며 현재 자신의 곁을 떠난 부인의 아름다운 모습을 떠올리는 한편, 어미 없이 초라한 명절을 보내는 아이들의 가슴 아픈 모습을 지켜보며 잠 못 이루는 화자는 비참한 자신의 처지를 서러워한다. 그러던 중 화자는 어린 자식을 잃은 백수 노인의 원통한 사연과 부모를 여의고 의탁할 곳이 없어 그 분함을 하늘에 고하던 어린 소년의 사연, 남편을 잃고 여자의 몸으로 홀로 아이들을 키우고 가정을 이끌어야 하는 소복 입은 부인의 처량한 노래 소리를 듣는다. 그들과의 대화를 통해 화자는 자신의 처지는 물론 다른 이들의 원통한 처지를 이해하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떠나보낸 아내에 대한 그리움에 그치지 않는 슬픔을 이기지 못해 한숨과 눈물에 잠을 이루지 못한다는 화자는 자신보다는 오로지 가족들을 위해 분주하게 일하는 부인들을 공경하고 아껴주어야 함을 당부하는 것으로 작품을 마무리한다. 이처럼 <고분가>는 홀로 원통하고 애통한 마음을 달랠 길이 없는 여러 사람들의 목소리를 담아내고 있는 작품이다. 또한 작품의 말미에는 화자의 당부의 말 이후에 앞서 제시된 가사와 동일한 구절이 반복되고 있어 주목된다. 필사자의 실수인지, 작자의 의도인지는 알 수 없지만, 반복되는 내용을 통해 상처(喪妻)한 화자의 슬픔을 보다 여실히 느낄 수 있다.

[원문]

고분가

고분가

어와 번님네요 이니말숨 들어보소  
 인싱세간 일편싱니 겨우겨우 백연이르  
 퉁연숨만 육천일이 빛과갓치 쌀이가니  
 무정후지 그지음미 엇지그리 훌훌하고  
 그간온되 스노인생 길흉영복 말할지되  
 조흔이도 만씨만안 의춤도 만이잇되  
 남북건너 버들두고 동서촌도 버시이서  
 금난메을 겨조두고 빈궁한산 산후할제  
 관훈승제 숨문후야 승왕승식 지닉더이  
 남신의 안무시선 날과같이 동언이로  
 쓰밧게 숨비소문 일정애 들리기로

도문차로 진즉가니 저친구의 거동보소  
 인스작별 하온후의 물동이를 두달리며  
 버가강미 고리혹되 존유지장 지민일<sup>α</sup>  
 역역이도 일더로 가소롭다 가소롭다  
 인심세가 가소롭다 수명장단 불치하면  
 부귀영화 불통하고 빈궁곤곤 참참이  
 가소롭다 가다롭다 엇던스름 팔자조하  
 고루거각 높은집의 남전복답 조흔전지  
 이들저들 싸여두고 도비진손 날이두고  
 호이호식 거닐적의 오룬촉릭 진수단의  
 척척의복 갓초입고 군션손반 조흔음식  
 적구총장 갓초먹고 당상의 부모양위  
 학발을 힌날이고 청연의 한미부부  
 퍽발도로 히로하고 슬하의 자손드르  
 정전의 가득하여 퇴평안락 지내오이  
 용용화기 만술하다 그중의 잘난조손  
 학업의 힘을써서 일등문장 천명하야  
 이인의진 도을씩고 숨강오룬 썸을바라  
 부모의계 효양하고 용문의 몸이올라  
 나라에 충성하니 그아니 거룩한가  
 효제충신 이아니며 부귀번화 니아닌가  
 이니셔름 드러보소 무슨죄악 심중하야  
 불과십세 계우되어 부모양위 구물하니  
 천지가 혼합한듯 일월이 무강일세  
 충천도 야수◆◆ 귀신도 몹시러로  
 이엇진 이린신고 호천망구 우리부모  
 어느날의 다시불고 이웃집에 저노인은  
 엇지하야 팔자조흐 저러드시 향수하야  
 퍽수풍신 조흐신고 노닌송주 보기쫓고  
 시하인스 흠면일식  
 슬푸다 우리부모 어느곳되 가계시고  
 세송영화 모르신고 가소롭다 이니팔조  
 망극흔 부모은혜 만분일도 못감푼니  
 천지간의 죄인니오 인간중의 궁인니로  
 무지무략 의지옵서 겨우겨우 조르나셔  
 연기장성 그이십에 미유향여 구흔할제  
 동셔되취 작을가려 길월양신 퍽일하며  
 초헝기을 초일적에 혼수호인 압셔우고

금안준마 뉘피안즈 흥선으로 채면하고  
 주마갓편 달여갈져 호련의 싱각하니  
 슬프다 우리부모 어나고지 극낙되어  
 이런경스 모르시고 신부집에 다달으니  
 주인츨령 마조들어 저안납페 호온후에  
 서동부세 마조서서 교빅예을 흥할적에  
 부선직빅 하온후에 세담일빅 마조하고  
 진주진찬 하여다가 거음거찬 하올적에  
 한존먹고 두잔먹고 삼세잔을 거들들어  
 맛두죇게 즐음하고 심중의 혀오되  
 이술한잔 먹은후의 월노승을 인연미즈  
 빅연희롱 편이하고 수고감감 느이호야  
 자자손손 번연키로 심중에 암축하고  
 슌방에 들어가서 섯천스를 생각하니  
 일히일비 식로◆◆ 석반을 먹은후의  
 밤이임의 황혼이로 좌우의 시비연들  
 인적을 물리치고 신부를 모셔올제  
 자리를 온겨안즈 단정이 미좌하고  
 옥안을 거나본나 설식화용 고은모양  
 월궁향아 익림한듯 요조숙여 조흔태도  
 군즈호귀 분명하다  
 등축을 물리치고 금침을 띄여놓고  
 섬섬옥수 년짓잡아 동금취침 갖치한니  
 은근성회 증양읍니 칠월칠석 은하수에  
 견우직여 송봉한듯 당명황이 귀비만나  
 이런트시 실겨시면 초피왕이 미인만니  
 이런트시 실겨던가 금시초견 오날밤의  
 하회갓치 김흔인정 퇴손갓치 중한인정  
 어느고되 비할손가  
 싱민의 처음이오 만복에 근원이로  
 초례을 치린후의 일거월져 나말가서  
 우리날을 갈일적에 일송싱기 이중천의  
 조흔날을 가라내여 신부을 마자온니  
 한문화기 가득한듯 인간의 경사로다  
 되방문별 후여로서 예의엄치 분명하다  
 온순지덕 정정지형 금세상외 드무◆◆  
 부총부슈 화합하야 무위공사 하시도다  
 집마시와 치스견과 무조각식 힘을써서

조반석죽 넉넉하니 불원인지 고양이로  
 싱남생여 스오남매 색색이 길러낼제  
 삼천교을 쏜을바다 좌제우열 전금후거  
 교영불출 규문하니 고지여스 짝이로다  
 조여훈가 길을낼제 이러그려 세월가니  
 훌훌과음 여유하야 오십춘추 거의된다  
 무정흐다 이세월아 엇지그리 빨이오뇨  
 인간공도 엇지할고 다시점기 어렵도다  
 조물의 시기하고 귀신이 저려던가  
 어초성이 금음되고 황전의 세리져서  
 거문고줄 쓴어지니 엇지하야 이어낼고  
 다시잇기 어렵도다  
 천의가 이러한가 가운이 이러한가  
 나의명덕 이러한가 가련하다 이신세여  
 조슬부모 하온후의 손히갓치 싸인서름  
 비할고지 읊섯다가 슬가지락 겨우붓쳐  
 이질날이 만이이셔 무정세월 원송하고  
 남훈여가 요회하야 조흔영화 보자더니  
 조물시기 즈로하야 중신할반 갈라내서  
 명명천화 도라가니 천연갓치 먹음마암  
 만만양 헤여지고 월고경사 매진언약  
 귀어허지 되난구나 이죄이죄 오호이최  
 횡여다시 환생하야 천생연분 부족함을  
 후성연분 다시되여 익연회로 굿게하면  
 전성여한 되더이을 마암되로 다시될가  
 죽난이도 설건이와 스느스람 엇지살◆  
 살림사리 범익사는 뉘로다려 의논하면  
 하로삼시 먹는음식 뉘손으로 하여주며  
 춘화추동 사시젤에 철철이 입는의복  
 뉘손으로 하여주면 방아짓기 물어오기  
 뉘손으로 하잔말고 온갖만사 생각하니  
 어독심사 들되읍니 퇴고적 시절에  
 글즈을 지을적에 환과고독 넷글즈을  
 무산일로 지어시여 진황천지 당후여서  
 천후시서 소화할제 의셔점서 종수셔논  
 엇지후여 안타시며 환과고독 넷글즈논  
 엇지후여 안타논고 만약긋씩 다타던들  
 스궁일흙 음실거로 허다만은 글즈중의

환복환조 원썩로다 환복환조 변후어서  
 즐길환조 되어서여 부부서로 마조안조  
 온갓만스 질길적의 운모병풍 들여치고  
 좁고규술 화창할씩 오동남굴 비여다가  
 거문고을 만들적의 봉황으로 기동서워  
 원앙으로 주을걸어 우름우의 언저놓고  
 두손으로 글을골라 동덤소리 놀일적의  
 봉환곡을 이루면서 추월춘풍 희롱하면  
 퉁연평생 질◆◆◆ 옥경의셔 부르거던  
 학을불려 명예하야 옥경누의 소스올라  
 송제전의 시위타가 다시세상 하강커던  
 식싱인연 되련만안 즐길환조 간곳업고  
 환복환조 이에밋쳐 무정하게 가는세월  
 스름수조 벗을삼아 춘풍도리 화이야와  
 추무오동 엽낙시에 스름수조 술을노니  
 동희수가 부족일세 의약세을 두는뜬든  
 만약스름 병이나며 신훈씨의 깃친술법  
 제중신변 송고하여 청낭금단 조흔약을  
 단정의 씨져내여 병든스름 구후어서  
 불노중생 허려하고 천추만세 전권만안  
 편조갓흔 용훈이원 이세송의 다시읍셔  
 장성불사 하는약을 구회내기 어려운니  
 병든사람 속절업다 정서를 두는뜬든  
 팔팔육십 스씩승과 삼백팔십 스홍중의  
 육십육갑 이십사위 선후천수 맛초어서  
 길즉길외 흥중흥외 명씩하게 어더니여  
 길흥화복 같이여셔 피흥취길 하러하고  
 이제까지 점건만안 음양이수 달이못회  
 피흥취길 잘못하니 음양서도 알수없다  
 수명장단 부귀복록 천생팔자 타고난일  
 수원수구 후잔말과 막비천수 엇지할고  
 천지간 만물중의 유인최귀 이룬바는  
 사람마다 아는바라 엇지후여 최귀한고  
 삼강오륜 웃듬이오 인의예지 근본이라  
 효제충신 힘을써서 엄치행실 분명흥이  
 유인최귀 이람이라 이러트시 최귀함◆  
 미물마담 못하는고 퉁연세월 다못가서  
 이세상을 하즉하며 다시오기 어렵지만

춘성의 초목입흔 금연봉의 피어나서  
 추즉엽탈 되어다가 춘부영화 다시되어  
 철철이 싱동할제 춘풍삼월 한식절의  
 좌우스천 둘러보니 두견화 만발하야  
 만조천봉 되연난되 탐화봉점 날아들어  
 춘담을 자랑하고 강남천리 현조새는  
 쌍쌍이 짝을지어 옛집을 차져와서  
 주인게 하례하고 남산의 높피안조  
 웅충조화 우지진드 식야식야 현조새야  
 작연잇씨 네가와서 색기쳐 길너낼져  
 자모상포 남도오야 구구상낙 길기다가  
 네곳으로 갖든것이 이제다시 오건만안  
 이집주인 하나의논 북망산 가노락고  
 팔조평정 압시우고 유되군 숨심명이  
 발맛초 매여갈제 압회선농 회가소리  
 어허님차 이제가면 어난천년 다시올고  
 일곡이곡 슬피불너 반날못되 가든기리  
 이제까즘 안이온니 저제비 거동보소  
 이윽히 자세들◆ 이리날면 저리날면  
 두리서로 짓는모양 주인하나 보지못해  
 슬허함을 버금은듯 각색비금 내왕할제  
 뒷산송정 바뢰보니 류궁식 날아와서  
 외로이 웃두안조 서려하게 우름우되  
 지지북궁 지집죽어 이러호제 우는구나  
 식야식야 북궁식야 너의우름 괴송하다  
 너에우름 잠관긔쳐 닉말잠관 들어바라  
 다른새를 둘러보니 웅비종조 쌀라갈제  
 양유청풍 횡화천의 비거버뢰 짝을불너  
 구심춘광 희롱한다 송세로운 봉황식은  
 오색빛을 갖초어서 인과덕을 몸에지고  
 조웅이 짝을지어 오동지송 깃드러여  
 상세로운 우름울고 퇴평성되 거동하여  
 기호관이 되어잇고 눈빛같은 칙학식은  
 현승호의 털쳐입고 청학칙학 짝을지어  
 운조만이 날아와서 철중노송 집을지어  
 순풍의 춤을추고 말은소리 우지지어  
 선인경가 되어잇고 평손십이 칙구식은  
 쌍쌍이 짝을지어 호호망망 창파승에

잠잠묵묵 등등써여 노던기 엽보면서  
 어숙반이 되어잇고 우리만든 회오리는  
 모뢰우의 잠즈다가 스름жат최 글미여서  
 싹을지어 흘적나로 범범수증 써여놀제  
 만고스름 다버리고 녹수청풍 희롱하면  
 벽계웅이 피여잇고 문체조흔 원앙시는  
 장운이 싹을지어 두리셔로 엇겨미여  
 녹수청강 흐른물의 주야동술 써서노◆  
 예전의도 이른마리 원앙새를 부려햐야  
 장한가를 씨어시되 직천원작 원앙조하고  
 직지원위 연이지헛지 이런말도 이세거늘  
 너는엇지 혼즈와서 우름소리 그려햐야  
 너의소리 들어보니 너도역시 상체한듯  
 식김심 숨씩중의 너의정곡 가공햐다  
 미물도스 저려한가 스람의셔 다름없다  
 일락서산 황흔되고 월중동영 숨경된니  
 삼경야월 두견새는 뒷동산에 슬피우니  
 소뢰소뢰 원한일세 식야식야 두견식야  
 너난엇지 슬피우노 네가슬피 우는모양  
 날과갓치 일반일다 초회왕의 고훈인가  
 너의몸의 붓쳐와서 곳곳마다 단이면서  
 세른회포 전햐난야 너무설계 우지마랴  
 남풍스월 괴화절의 금의공즈 젓씩소리  
 양유척척 번응이에 비거비뢰 벗브르니  
 환우성이 미미햐다 식야식야 황조식야  
 너난엇지 무사햐야 저려트시 스름읍노  
 너모양을 주세보니 작연잇씩 보던새로  
 그스이에 어되갓다 이제다시 쏘왓난야  
 오월이라 천중절◆ 일지일지 창화한다  
 옥창왕도 불거잇고 만수청음 그늘속에  
 오월원조 우난님이 숨지헛지 온겨면서  
 퇴평노뢰 햐는구나 너난엇지 한가햐야  
 이러트시 노뢰햐노 서름잇는 스람마암  
 너무그리 돛지마라 쏘한편 바로보니  
 수양청청 버들가지 추천줄을 후려내고  
 남속촌 미인드리 반션히로 히롱햐니  
 가소롭다 죽난인생 저런풍경 모라난고  
 칠월이라 칠석일에 견우직녀 상봉할씨



오작이 다리노어 일도송강 건너가서  
 일주연 못본정회 오경야반 낮비보고  
 각분동서 헤어질뻔 명연기약 다시하며  
 세상인간 한번죽어 불부환심 우셔더라  
 오동엽낙 금정시예 슬슬성이 쫓쫓하되  
 벗짜라고 짓촉하니 이웃집 저나부가  
 아회품고 잠즈다가 쌈작놀니 이러나서  
 슬푸다 우리부인 벗싸줄을 모르난고  
 춘남추복 저기력이 월남장천 높이써서  
 슬피울고 가난구나 저기가난 저기력이  
 어나스롭 편지전코 어누곳을 향하난야  
 소문편지 전튼고되 북회산을 향하난야  
 북회산을 향하거던 북망산 차져가서  
 우리부인 유인차져 나의수심 전회주면  
 아회들 어미차져 송탁압회 의지하야  
 어마어마 슬피불너 이통망극 하난거동  
 난난이 전할손야 창당한 반공중의  
 빈소리 쏘이로다  
 추풍은 소소하 ◆ 낙엽은 단정한데  
 창전의 구회솜은 장연잇썬 피든솜치  
 쏘다시 피엿구나  
 솜흔솜흔 국화솜흔 온갓빅초 들너보니  
 서리압회 낙엽되여 소소하게 지건만안  
 너난엇지 서리압회 무산정기 머금어서  
 작작히 피엿난고 숨경취황 하여시되  
 손국유존 이라든니 진쳐스는 어되가고  
 너스랑을 모르난야 가련왕손 귀물지는  
 일노쫓초 이람이도 일년숨씩 육십일은  
 유수갓치 지기가고 세시가절 당하여서  
 만호천운 돌보니 송구영신 조흔하니  
 어미잇난 아회드른 기복치레 불작시면  
 청식흥식 조흔가암 곳게곳게 지어입고  
 숨숨오오 데울지어 압들의 디말타기  
 뒷동산의 연쓰우며 세환신구 노리하고  
 남북촌 그소드른 엇게결의 작반하야  
 이집저집 단이면서 세시봉납 흥을붓쳐  
 핑양포고 술마시며 신연만복 하려하고  
 동서촌 부여드른 조흔의복 갓차입고

압집의가 송육치기 뒷집의가 편웃놀이  
 송구영신 즐기던◆ 슬프다 우리부인  
 공손적적 무인쳐외 뉘로다려 벗하난고  
 어엿썸 우리아회 조흔의복 고스하고  
 춘포송복 덜쳐입고 송탁압에 의지하여  
 익통망극 하난거동 참여보기 어색하여  
 원중의 미화솟흔 설중의 피여날제  
 양유다려 봄을닷튀 먼저피여 만발하여  
 동피춘광 하여구나 각식만물 불작시면  
 철철이 쇠을차져 이러트시 화창커던  
 엇지하야 스롬의는 환생할줄 모르난고  
 하지일 긴긴날의 호요업시 혼조안조  
 만괵수를 품어신들 어나뉘가 아도보며  
 동지야 긴긴밤의 만단회포 품어신들  
 어나뉘가 위로할가 전전반죽 잠못들어  
 담비되을 벗을삼아 이리저리 창단체출  
 중쳐의 결연다른 처량하게 넘어가내  
 겨우겨우 한잠들어 쏴흐나 어들적에  
 동섯춘 달리드른 새벽제촉 하노락고  
 헛되치고 우난소리 어든솜 씨워구나  
 달가달가 우지마라 시간젓촉 과니한다  
 날이새면 아참한니 뉘손으로 아참하며  
 뉘손으로 물어오뇨 이러트시 노래할제  
 것회안조 들어보니 듯난사람 비참하다  
 이친구야 그리마라 아무리 서러하든  
 죽난스롬 당할손가 한번죽어 영결하면  
 천만년이 지내가도 다시오지 못흐거늘  
 스난세월 보게되면 이러트시 서례히도  
 겨으리면 뜨신방과 여름이면 근을치◆  
 편는되로 걸쳐흐니 스난사람 못살라고  
 이친구야 그말마소 예전사기 아니밧소  
 쥬둔왕이 천하어더 엇조창싱 건지락고  
 어진정스 벼무러서 스회만방 살필적에  
 환과고독 스궁인을 먼저차져 안보흐니  
 글노두고 불지라고 천지간의 공한스람  
 스궁밧게 쏴인는가 쏴한말 들어보소  
 인지무쳐 닐는것은 옥지무람 갖다흐니  
 그안이 가려한가 옛날길가 밧일적의

그쳐정심 가져와서 부부서로 공경하기  
 손님갓치 되접하니 나는 $\infty$ 영 받들미들  
 뉘가와서 공경하리 니가일전 승처저의  
 한교되 지내다가 엇더한 백수노인  
 웃독이 혼조안조 비회를 금치못회  
 양안의 두줄눈물 비오드시 소스나면  
 양천통곡 하난모양 날빛치 변한듯  
 손천이 늦기는데 강수가 오려한듯  
 오장이 무너진듯 술허함이 이러커늘  
 여보시오 이노인요 엇지그리 술허하오  
 저노인 거동보소 여보내말 들어보소  
 조식한기 만득하니 세상이 니흔조듯  
 금옥갈치 사랑하니 금동이라 일흠할가  
 옥동이라 일흠할가 하늘갓치 어질거날  
 태산갓치 굳세거라 일월성신 전기씨여  
 이십팔수 모든성과 너의몸의 두호하야  
 동방석의 명을타고 객분양의 복을바다  
 동서남북 도이나마 숨지팔느 읍게하고  
 기주으복 일월슬을 만세만세 하여세라  
 얼런속회 장성하여 공망도의 드러서로  
 숨강오른 으뜸이로 의친경명 흥논법과  
 총궁도를 하난도를 저저이 비운후의  
 수신계가 하여시로 입신양명 흥온후의  
 감고영화 되오리도 너의덕의 영화보조  
 태산갓치 미더두고 이러투스 길너던니  
 총천이 무정하고 지부왕이 사정없서  
 우리아회 다려갓소 천지신명 소소하니  
 유독나를 몹시하고 가련하다 이신세여  
 뉘로믿고 부지하면 원통하다 우리아회  
 네갈고지 어되매야 포발군들 가소롭다  
 나는만약 죽어지며 뉘가이셔 무더주면  
 무덤우의 풀이나면 뉘손으로 쓴어주노  
 천지간의 공인되어 이러투스 설건만안  
 문왕갓은 성군읍서 조세히 못술피리  
 어날되 의탁할고 여보시오 이노인요  
 너무그리 설려마오 참혹지상 말할진되  
 일부청양 읍건만안 세상사람 살펴보며  
 그런되도 허다후오 만고성환 공보조도

안전참변 당하였고 안시갓치 어진이도  
 한명거역 못혀서 요사하여 돌아가니  
 천심만민 하실적의 정한명을 엇지하오  
 너무그리 의통마오 천우신조 하고보면  
 세되이을 조식으난 뜻밧게 이시리다  
 이러트시 이웃하고 쏘한고되 다달으니  
 엇더한 아회흐나 의상은 남누하고  
 용모는 초최한데 술성통곡 하난말이  
 슬프다 우리부모 어나고되 가계시오  
 압남손 나무입과 뒷동손 쏘봉이는  
 작연잇쇠 피든거시 금연다시 피것만안  
 엇지하여 우리부모 한번가니 못오느고  
 고지흐천 술으소뢰 구쳐의 사모친듯  
 아회야 너의부모 너울두고 어되갓노  
 보는사람 강내하다 저아회 되답혀되  
 제의팔자 무송하고 죄악이 심중하야  
 부모양위 구몰하니 망극지통 가이읍셔  
 이러트시 통곡회도 유명이 아람읍시  
 한말삼 되답읍셔 이더지 모르시니  
 망극하여 못술되소 우리동유 돌너보니  
 당송부모 구준하여 퇴평화락 좃컨만안  
 나는엇지 불초하여 유이무부 고가되여  
 이러트시 곤궁하고 예전스기 드러보니  
 황항의 선침함과 육적의 회궤한니  
 스척의 술여여서 이제까짐 점컨만안  
 나는남의 조식되여 망극한 부모은혜  
 만분지 일이라도 갑삽지 못하온니  
 원통한 마암으난 어나척의 기옥하면  
 철천여한 되는이을 어나고되 푸오릿까  
 일월이 광명하나 수물이 가리여서  
 광명한줄 모르압고 천지 광되하나  
 의탁곳 바이읍셔 광되한줄 모르내다  
 무슨쇠약 지중하여 연기불과 심세되여  
 부모의제 양화밧쳐 망극지통 당사온니  
 엇지하여 사오릿까 아회야 너의정곡  
 가런참혹 하다만안 죽는고되 비할손가  
 일생일스 되는거션 스람마담 잇는이로  
 너무그리 의통마르 이러트시 말웃하고

또한고되 지이더나 엇던부인 소복하고  
 아회를 것회두고 슬허하게 노래하되  
 천생만민 하슬적에 엇던스름 팔즈줄게  
 수부귀 다남즈다 극낙세월 점제하고  
 나는팔자 무산죄로 이덧하게 망극하고  
 순명한 하나임은 나의정곡 살피소서  
 여즈일신 가소롭다 규중의 심체하야  
 부모임 은덕으로 곳게곳게 장양회◆  
 선왕지예 법을좃차 이십의 성인하어  
 친당을 멀리하고 사람하나 쌀라와서  
 사생고락 의탁하고 천만을 밋더더니  
 미든마암 간곳읍고 반백년이 못다가서  
 일진광풍 이러난내 일조일석 천만의외  
 천고연결 이원일고 슬프다 아회드로  
 너의들은 엇지솔며 망극하다 이내신세  
 뉘로믿고 부지하며 원통하다 죽는인스  
 어나고지 극낙되여 천즈진속 씨쳐두고  
 갈고지 어되던고 옥화상제 명올바다  
 퍽옥누의 소스올라 상제전의 시위타가  
 인간수복 마편할제 수명복녹 의결하여  
 세상강송 다시되여 산생연분 미지락고  
 후생길노 오라던가 숨손십주 차져가서  
 삼천계를 발바드러 기화요초 만발한되  
 여러선관 노던고되 선이쌀아 가게신고  
 시중쳐스 퇴킵쳐로 기경상천 하려하고  
 최석강 명월야회 청풍명월 회룡타가  
 도라오기 이전던가 한인유후 조방쳐로  
 인간스우 마다하고 적송즈을 쌀으락고  
 이세상을 바려친가 진시왕의 위쳐로  
 불사약을 구하락고 숨신손을 가라다가  
 길을잘못 차져드려 지부중의 드러가니  
 그고지가 극낙되여 도라올줄 모라난가  
 극낙세계 그어디며 지부국이 어되넌고  
 무정한 지부왕은 남의스정 절박함을  
 그다지도 모르난가 명월스창 빗게안즈  
 한양읍난 품은회포 소회할곳 전희읍서  
 악전탄식 기리할제 말이장공 일편월은  
 서산의 걸쳐잇고 뒤동산의 즈음시는

무슨서름 품어기로 저러트시 슬피우러  
 소뢰소리 피눈물로 솟싸지로 적시논고  
 아마도 너의회포 날과갓치 일반인듯  
 수수하게 부는바람 창전의와 소술하고  
 양양하게 흐른물은 구부구부 오염하다  
 북두가인 쌍누유는 무슨서름 품어시며  
 인생칠십 고뢰히와 왕손귀불귀란 글은  
 어나문장 지어던고 일생영육 함기하고  
 퍽연고락 의탁하야 오복경전 바뢰더니  
 오복경전 고스하고 봉성지통 이외일고  
 창천도 무지하고 권신도 야속하다  
 슬프다 아회드라 너의드른 무슨팔조  
 유이무부 고가되고 나는엇지 무슨팔조  
 노이무부 과가되여 이러트시 의참한고  
 온갓만스 생각하니 어독심스 들데없다  
 북망산 구어보니 실안이 들너논되  
 세우소소 우는비는 너의부친 눈물이다  
 아마도 너의부친 사불명목 하였도다  
 공산홀로 누어신들 여논친구 차저가면  
 우리이리 망극한들 너의부친 아람업서  
 차저올줄 모르신다 벽회가 송전되고  
 퇴산이 편지되면 다시오조 하여던가  
 강산의구 인여몽은 이로두고 이람인가  
 세월무정 여류하여 양춘세계 쏘앗친니  
 초목군심 다질기내 시내가의 푸른버들  
 바람결의 모뭇계여 춘광을 쉼여잇고  
 손두의 솟봉이논 난만이 피여난되  
 퍽설갓한 호접으로 솟봉이을 넘노날고  
 완환하는 손임에는 무리무리 둔취하여  
 이등저등 다니면서 춘일가기 흥을붓쳐  
 조흔풍유 노년손임 뉘기뉘기 모혀던고  
 가련하다 우리임은 저런노름 모르신고  
 세상풍유 마다하고 낙릉도원 복성곳을  
 그물치고 구경턴가 의춤하다 이뇌팔조  
 뉘로믿고 스조말고 문전의 잔은손임  
 뉘가이서 접되하면 선안손의 잇난섯척  
 뉘손으로 펴어보며 솔임소리 번킵스는  
 뉘손다려 의논하며 논갈기와 발갈기는

뉘손으로 하잔말고 어천만스 칭각하니  
 아득하여 못살것네 산회갓치 싸인서류  
 어나곳되 풀어볼고 누수방방 소스나서  
 벼기님의 모시되고 한숨지어 바람되어  
 후원속임 소소하다 죽는세월 쌀치못허  
 스조한들 엇지살고 오메불망 생각하니  
 어의어의 한얼굴과 징징한 말소리는  
 듯난다시 보난다시 여광엿취 하건만산  
 유명이 허수하여 이려트시 모르시내  
 슬프다 아회드라 너의드른 얼년커셔  
 요조숙여 취쳐하야 퉁연가약 기리할제  
 단슨의 노던봉황 퉁오의 깃든드시  
 빈취가적소의 잇난드시 원앙이녹수의 노던드시  
 여천지 무궁토로 극낙세월 보즈더라  
 이려트시 슬피한니 철석갓한 간장의도  
 비창함이 절노나네 내가이제 당회보니  
 나의회포 갓한자라 세송스람 스는즈미  
 금슬지락 그뻑게도 무손낙이 쏘잇난가  
 이친구가 그말말고 얼년다시 속현하야  
 금슬지락 다시되면 훗촉동방 식빛난고  
 탄농성이 칭아하면 그안이 조흠손가  
 장부명식 허난인사 저려트시 슬허하면  
 남으게 비소되리 너무그리 마르시려  
 어허여보 이친구야 그마리스 올소만안  
 셤영다시 속현한들 기신공가 허여시오  
 기구여지 허어하니 엇지아니 오려할가  
 남의말슴 하기조회 그런말슴 허지만안  
 시세압회 당회보면 나의회포 아오리다  
 이리트시 말슴타가 무루하게 도라와서  
 부인다려 마조안즈 조문가세 드른노뢰  
 낫낫치 셤화허되 엇초엿초 허난노뢰  
 일변은 비감허나 일변은 우습허되  
 저부인의 거동보소 정식허고 하난말이  
 우습하기 원마리요 예전스기 안이밧소  
 부부잇는 연후이스 부조형제 잇다하니  
 그안회가 혈후하면 퉁연가약 정할적의  
 미작이 인도허고 부모의 명영바다  
 깃든언약 구든언약 전안석의 미세허고

납폐천영 하여시니 엇지안이 소중한오  
 남은심스 비창한되 우습기가 원이리요  
 예적의도 성인드리 일유을 가라칠되  
 송강오룬 되강영화 스단칠정 잇는법을  
 조세히 일너거날 송강오룬 쓴어지고  
 스단칠정 읍셔지면 엇지하여 스람이오  
 미물이라 흥난거도 만약씩을 일고보며  
 슬우지탄 잇거시늘 흥물면 스람이야  
 미물중의 비하릿가 여라인의 송스의도  
 측은시슈 닐거시늘 흥물면 부부지간  
 송의송낙 이을지되 이성지합 부부되어  
 퍽연고락 갖치하며 조식나여 세되이어  
 조송향화 밧드시이 그안회가 혈후하면  
 감지을 바수어서 구고을 밧드시고  
 방적적임 힘을써서 군조건질 밧드시니  
 그안회가 혈후호오 남조이력 보게되면  
 부어시가 어렵호오 상쳐락고 흥고보면  
 중스도 흥듯마듯 송내가기 의논하며  
 여기저기 구훈하면 고은뵈 다려다가  
 신정의 조미붓쳐 흥어후쳐 흥울적의  
 이전쳐의 스든정을 추호만침 심각할가  
 그중의도 불족호야 흥화촌의 쥬즉장과  
 화류장의 일등내색 여기저기 잇난고되  
 심심흥면 놀로가세 히롱하면 노름노지  
 그마리사 올소이다 속담의 이른말이  
 쳐조라 흥는거션 골골마담 있다하니  
 되장부의 천변인가 아여조에 관계되어  
 소소곡절 생각할가 내말잠관 들어보소  
 예양이란 스람으난 나라를 섬기다가  
 국운이 불황호야 국파군방 하온후의  
 나라원수 갓푸락고 칠신위나 병인되고  
 탐탄위아 버을되어 흥걸어서 할제  
 동거하던 그안회는 가중인줄 물내시되  
 그친구는 아라보고 손목잡고 우러시니  
 굴노두고 보게되며 그안해가 소중한며  
 오기란 스람의논 그안회를 죽인후의  
 늦날아 되장되어 큰공명을 세월니니  
 그런일도 잇거시늘 아여조를 심각하이



그던하게 비참할제 저부인의 거동보소  
 즈리를 온겨안조 공순이 되답흐되  
 그런말숨 할줄아오 예안이로 말할진되  
 열고리 병인되고 말소리 버울되여  
 환형변되 되여거늘 그안해를 엇지알면  
 오기를 이울진되 오륜은 전폐하고  
 공명만 아난바지 중씨문의 다일적의  
 어마송스 당희시되 분상하지 아이컨늘  
 중씨가 미쳐시니 오륜의 버셔났고  
 늦나라 되장될되 그안회를 죽인후의  
 되장군 일흠써여 공명을 일와시나  
 남에게 초소바다 타국을 도망가니  
 오기이력 울소잇가 여조행실 드러보소  
 숨중지도 직키여서 되가종부 후웁다가  
 급기장야 후야셔는 원부모 형제하고  
 적인종부 의탁후야 생직동침 갖치하고  
 스죽동혈 후조다가 불황후야 부스후며  
 봉성지통 가이읍서 일촌간장 망극중의  
 빙설갓한 마암으로 열여부경 이부심을  
 숨중의 굳게두고 조속으게 의탁후야  
 종신토로 수절후니 그안회가 혈후후오  
 그양반의 마암의는 칙연고락 함기다가  
 천만의외 몽내간의 유명지간 갈라져서  
 영결종천 이별후니 죽은지숨 간절후여  
 그러트시 빈참커늘 엇지후여 우습후오  
 저런말숨 드을진되 부부유별 지중함이  
 오륜중의 엇지들며 안회죽어 고축할제  
 비도산고 불조승감 엇지후야 일너던고  
 히로의탁 우수스는 어나고되 쫓초나오  
 그말숨을 드을진되 나도역시 죽어지면  
 측은지심 고스후고 눈물한점 안내게소  
 내외간의 마조안조 이러트시 논박타가  
 몇날이 못갓던니 시운이 불길턴가  
 귀신이 엽보던가 저부인의 신명보소  
 우연 득명후야 손음수작 후웁다가  
 음흉등선 후난구나 스죄불가 부생후여  
 초송장스 치린후의 내당의 들어가니  
 아회들은 슬허후야 어미불너 의동후여

여기저기 노인기계 임조읍셔 슬허한듯  
 한품이 소소한듯 적적무인 갓한지라  
 이것저것 생각하니 울적한마암 절노난다  
 아무거시 송쳐하여 조문가셔 노뢰듯고  
 비소하소 왓든이리 과연과연 잘못횿닉  
 나는압회 당회보니 그친구의 노뢰보다  
 열법이나 더흐겠네 정구지역 생각하니  
 적막하기 그지없고 살림스리 스즈하니  
 군속함토 그지읍고 밤이들러 잘나하며  
 잠음어이 아니오며 한숨은어이 자로난노  
 납시렵지 안이하면 방성통곡 실큰울서  
 어와세상 스람드라 부모효양 흐는바단  
 철윤으로 흐거이와 부부지간 지은정은  
 과중하게 되접하여 부디부디 공경하소  
 여즈이력 보게되면 솔림스리 유부간의  
 조흔음속 조흔의복 마암되로 못해보고  
 알드리 노력할제 밤이들면 길슴방적  
 날이새면 전구지역 안질여가 읍시하며  
 평생고역 흐난이을 어엽비 여기시고  
 부화부순 상의하면 부디부디 공경하소  
 이굴보난 스람들은 웃지말고 들어보소  
 정신없이 씨노락고 무리없고 연익읍셔  
 되구말구 지어시니 부디부디 눌러보소  
 비도산고 볼즈승감 엇지하여 일너던고  
 히로의락 우수스는 어나고되 쫓차나오  
 그말숨을 들을진되 나도역시 죽어지면  
 측은지슴 고사하고 눈물한점 안나겿소  
 내외간의 마조안즈 이러트시 눈박타가  
 벗날이 못던니 시운이 불길턴가  
 귀신이 엽보던가 저부인의 신명보소  
 우연이 득병하야 스음수작 하옵다가  
 음흠등션 흐난구난 스죄볼가 부침하여  
 초생장스 치린후의 내당의 들어가니  
 아회들은 슬허하야 염이불너 의통하고  
 여기저기 노인기계 임조읍셔 슬허한듯  
 한품이 소소한듯 적적무인 갓한지라  
 이것저것 생각하니 울적한마암 절노나내  
 아낙거시 송치하여 조문가세 노뢰듯고

비소하고 왓던일니 과연과연 잘못횬내  
화설히동조선국명종대왕시절이라전라도무주남면  
고비촌에일위명사있으뇌성은신이요명은병이니장  
열공팔세손이요사대신스신당의아들이라어려서부터  
총명이과인하며학업을힘써학낙이출중하야작문의  
항심작의하다가경과초시로회시장원하야진스에뻗혀  
논지라왕상이기특이역이스실리를진퇴하신이라신영이  
사은속빅하고물너나와고향에돌아와가묘에빅현스고선  
산에녕분흔후에부인최씨로부터농사를힘써가산은선◆  
하나다만슬하에일점혈육이업스미미양슬프하더니일일  
은진스스부인으로작만하야울울흔비회를풀고조하야후  
원동산에올라가일변풍경도완상하며일변산산쑈로이러저리  
빅회하다가인간삼싱스를담화홀시잇찌는맛참춘삼월  
만감이라동산서원에빅화는만발하야불긋불긋하며전천후당  
에랑류논의의하야파눗파눗하야원근산천을단청하얏논뒤화간  
접무논분분설이요룻상잉비논편편금니며비금주수는춘흥을

[현대역]

고분가

고분가

어와 벗님네요 이내 말씀 들어보소

인생(人生) 세간(世間)1 일평생(一平生)2이 겨우겨우 백년(百年)이라

백년(百年) 삼만(三萬) 육천일(六千日)이 빛과 같이 빨리가니

무정(無情)하기 그지 없네 어찌 그리 훌훌하고

그 가운데 사는 인생(人生) 길흉(吉凶)3 영복(永福)4 말할진데

좋은 이도 많기 많은 의참함도 많이있되

남북(南北) 간(間)에 벗을 두고 동서(東西) 촌(村)도 벗이 있어

금난(金蘭)5메를 곁에 두고 빈궁(貧窮) 한산 산하(山下)할제

관혼상제(冠婚喪祭)6 삼문하야 상왕상새 지내더니

남신의 안무시선 나와 같이 동언이로

뜻밖에 삼비 소문 일정에 들리기로

조문(弔文) 차로 진즉 가니 저 친구의 거동(舉動) 보소

인사(人事) 작별(作別) 하온 후(後)에 물동이를 기다리며

버가강미 고래(古來)7하되 군유(群有)8지장 지민 일 $\infty$

역역히도 일더로 가소(可笑)롭다 가소(可笑)롭다

인생(人生) 세가(世家) 가소롭다 수명(壽命) 장단(長短) 불치하면

부귀영화(富貴榮華)9 불통(不通)하고 빈궁곤(貧窮困)10은 참참이

가소(可笑)롭다 가다롭다 어떤 사람 팔자(八字)11 좋아

고루거각(高樓巨閣)12 높은 집의 남전(南田)13 북답(北畝)14 좋은 전지(田地)15

이들 저들 싸여두고 도비(都鄙)16 진산 날이 두고

호의호식(好衣好食)17 거닐 적에 오른 촉백(蜀魄)18 진수단의

척척 의복(衣服) 갖춰입고 군선 손반(飡飯)19 좋은 음식

적구(積久)20 충장(充腸)21 갖춰 먹고 당상(堂上)22의 부모(父母) 양위(兩位)23

학발(鶴髮)24을 흰 날이고 청연의 한미(寒微)25 부부(夫婦)

백발(白髮)토록 해로(偕老)26하고 슬하(膝下)27의 자손(子孫)들을

정전에 가득하여 태평(太平) 안락(安樂) 지내오니

융융(融融)28하기 만술하다 그 중(中)에 잘난 자손(子孫)

학업(學業)에 힘을 써서 일등(一等) 문장(文章)29 천명(天命)하여

이인의진 도(道)를 닦고 삼강오륜(三綱五倫) 본(本)을 받아

부모(父母)에게 효양(孝養)30하고 용문(龍門)31에 몸이 올라

나라에 충성(忠誠)하니 그 아니 거룩한가

효제충신(孝悌忠信)32 이 아니며 부귀(富貴) 번화(繁華)33 이 아닌가  
 이내 설움 들어보소 무슨 죄악(罪惡) 심중(深重)34하여  
 불과 십세(十歲) 겨우 되어 부모(父母) 양위(兩位) 구몰(俱沒)35하니  
 천지(天地)가 혼합(混合)한 듯 일월(日月)이 무강(無疆)36일세  
 창천(蒼天)도 야수◆◆ 귀신(鬼神)도 몹시러로  
 이 어찌 이린신고 호천(呼天)37 망구 호천(呼天) 망구 우리 부모(父母)  
 어느 날에 다시 볼고 이웃집에 저 노인은  
 어찌하여 팔자(八字) 줄아 저럴듯이 향수(享壽)38하야  
 백수풍신(白首風神)39 좃으신고 노닌 상주 보기 좋고  
 시하(待下)40 인사 흥면일세  
 슬프다 우리 부모(父母) 어느 곳에 가 계신고  
 세상(世上) 영화(榮華) 모르신고 가소(可笑)롭다 이내 팔자(八字)  
 망극(罔極)한 부모(父母) 은혜(恩惠) 만분일(萬分一)41도 못 값으니  
 천지간(天地間)의 죄인(罪人)이오 인간(人間) 중(中)의 공인니로  
 무지(無智) 무락(無樂) 의지(依支)42없어 겨우겨우 자라나서  
 연기(年紀)43 장성(長成)44 그 이십(二十)에 미유향여 구혼(求婚)할제  
 동서택취 작을 가려 길월(吉月)45 양신(良辰)46 택일(擇日)47하며  
 초행(初行)길을 초일(初日)적에 혼수(婚需)48 호인(好人) 앞세우고  
 금안(金鞍)49 준마(駿馬)50 높이 앉아 홍선(紅扇)51으로 체면(體面)하고  
 주마가편(走馬加鞭)52 달려갈제 흘연(忽然)히 생각(生角)하니  
 슬프다 우리 부모(父母) 어느 곳이 극락(極樂)53되어  
 이런 경사(慶事) 모르신고 신부(新婦) 집에 다달으니  
 주인출영(主人出迎)54 마주 들어 저안 납폐(納幣)55 하온 후(後)에  
 서동부서(婿東婦西)56 마주 서서 교배례(交拜禮)57를 행(行)할 적에  
 부선재배(婦先再拜)58 하온 후(後)에 서답일배(婿答一拜)59 마주하고  
 진주진찬(進酒進餐)60 하여다가 거음(舉飲)61 거찬(舉餐)62 하올 적에  
 한잔 먹고 두잔 먹고 삼세잔을 거들 들어  
 맛도 좋게 즐음 하고 심중(心中)에 혀오되  
 이 술 한잔 먹은 후(後)에 월노승(月老繩)63을 인연맺어  
 백년(百年) 희롱(戲弄) 편히하고 수고 감감 느끼하여  
 자자손손(子子孫孫)64 번연(蕃衍)65키로 심중(心中)에 암축(暗祝)66하고  
 신방(新房)에 들어가서 섯천사를 생각하니  
 일희일비(一喜一悲)67 새로◆◆ 석반(夕飯)을 먹은 후(後)에  
 밤에 님의 황혼으로 좌우(左右)에 시비(侍婢)68연들  
 인적(人跡)을 물리치고 신부(新婦)를 모셔올제  
 자리를 옮겨 앉아 단정(端正)히 미좌하고  
 옥안(玉顏)69을 거나 보나 설색화용(雪色花容)70 고운 모양(模樣)  
 월궁항아(月宮姮娥)71 애림한듯 요조숙녀(窈窕淑女)72 좋은 태도(態度)

군자(君子) 호기(豪氣)73 분명(分明)하다  
 등촉(燈燭)을 물리치고 금침(衾枕)74을 피어놓고  
 섬섬옥수(纖纖玉手)75 년짓 잡아 동금(同衾)76 취침(就寢) 같이하니  
 은근 성희 총양없네 칠월칠석(七月七夕)77 은하수(銀河水)에  
 견우직녀(牽牛織女) 상봉(相逢)한듯 당(唐) 명황(明皇)이 귀비(貴妃)78만나  
 이런듯이 실겼으면 초패왕(楚霸王)79이 미인(美人)만나  
 이런듯이 실겼던가 금시(今時) 초견(初見) 오늘 밤의  
 하해(河海)80같이 깊은 인정(人情) 태산(泰山)같이 중(重)한 인정(人情)  
 어느 곳에 비할손가  
 생민(生民)의 처음이오 만복(萬福)81의 근원(根源)이로  
 초례(醮禮)82를 치른 후(後)에 일거월저(日居月諸)83 나말가서  
 우리 날을 갈일 적에 일송 생기 이 중천(中天)에  
 좋은 날을 가려내어 신부(新婦)를 맞아오니  
 한문(寒門)84 화기(和氣)85 가득한듯 인간(人間)의 경사(慶事)로다  
 대방(大邦)86 문벌(門閥)87 후예(後裔)로서 예의염치(禮義廉恥)88 분명(分明)하다  
 온순지덕(溫順之德)89 정정지행(定情之行)90 금(今) 세상(世上)에 드무◆◆  
 부창부수(夫唱婦隨)91 화합(和合)하야 무위(無爲) 공사 하시도다  
 집마시와 치사견과 무조 각색(各色) 힘을써서  
 조반(朝飯)92 석죽(夕粥)93 넉넉하니 불원인지 고양이로  
 생남(生男)94 생녀(生女)95 사오(四五) 남매(男妹) 색색(色色)이 길러낼제  
 삼천교(三遷教)96를 본(本)을 받아 좌제우설(左提右挈)97 전금후거(前襟後裾)98  
 교영 불출(不出) 규문(糾問)하니 고지여사 짝이로다  
 조여흔가 길을 낼제 이러 그려 세월(歲月)가니  
 훌훌 과음 여류(如流)하야 오십(五十) 춘추(春秋)99 거의 된다  
 무정(無情)하다 이 세월(歲月)아 어찌 그리 빨리 오노  
 인간(人間) 공도(公道) 어지할고 다시 젊기 어렵도다  
 조물(造物)100이 시기(猜忌)하고 귀신(鬼神)이 저러하던가  
 어초성(聲)이 금음(琴音)101되고 황전에 세리져서  
 거문고줄 끊어지니 어찌하여 이어널고  
 다시 잇기 어렵도다  
 천의(天意)가 이러한가 가운(家運)102이 이러한가  
 나의 명대 이러한가 가련(可憐)하다 이 신세(身世)여  
 조실부모(早失父母)103 하운 후(後)에 산해(山海)같이 싸인 설움  
 비(比)할 곳이 없었다가 실가지락(室家之樂)104 겨우 붙여  
 잇을 날이 많이있어 무정(無情) 세월(歲月) 원송(遠送)하고  
 남혼여가(男婚女嫁)105 요회하야 좋은 영화(榮華) 보자더니  
 조물(造物) 시기(猜忌) 자로하야 중신할반 갈라내서  
 명명 천화 돌아가니 천연(天然)같이 먹은 마음

만만양 헤어지고 월고경사 맺은 언약(言約)  
 귀어허지(歸於虛地)106 되는구나 애죄 애죄 오호 애최  
 행여 다시 환생(還生)107하야 천생연분(天生緣分)108 부족(不足)함을  
 후생(後生) 연분(緣分) 다시 되어 백년해로(百年偕老)109 굳게 하면  
 전생(全生) 여한(餘恨)110 되더 이을 마음대로 다시 될까  
 죽는 이도 서럽거니와 사는 사람 어찌 살◆  
 살림살이 범백사(凡百事)111는 뉘로 다려 의논(議論)하면  
 하루 삼시(三時)112 먹는 음식(飮食) 뉘 손으로 하여주며  
 춘하추동(春夏秋冬) 사시절(四時節)에 철철이113 입는 의복(衣服)  
 뉘 손으로 하여주며 방아짓기114 물어오기  
 뉘 손으로 하잔 말인고 온갖 만사(萬事) 생각(生角)하니  
 어득115 심사(心思) 들데 없니 태고(太古)116적 시절(時節)에  
 글자를 지을 적에 환과고독(鰥寡孤獨)117 네 글자를  
 무슨 일로 지어시어 진황(眞況)118 천지(天地) 당하여서  
 천하(天下) 시서 소화할제 의서점서 종수서는  
 어찌하여 앓다시며 환과고독(鰥寡孤獨) 네 글자는  
 어찌하여 안닷는고 만약(萬若) 그때 다닷던들  
 사궁(四窮)119 이름 음실(陰室)120 거(居)로 허다만은 글자 중(中)의  
 환복환자(鰥復鰥字) 원수(怨讐)로다 환복환자(鰥復鰥字) 변(變)하여서  
 즐길 환(歡) 자(字) 되어서어 부부(夫婦) 서로 마주 앉아  
 온갖 만사(萬事) 즐길 적의 운모병풍(雲母屏風)121 들여치고  
 좁고 규술 화창(和暢)할 때 오동(梧桐) 나무 베어다가  
 거문고를 만들 적에 봉황(鳳凰)으로 기둥 세워  
 원앙(鴛鴦)으로 줄을 걸어 우름 위에 얹어 놓고  
 두 손으로 글을 골라 동덤122 소리 놀릴 적에  
 봉황곡(鳳凰曲)123을 이루면서 추월(秋月) 춘풍(春風) 희롱(戲弄)하면  
 백년(百年) 평생(平生) 질◆◆◆ 옥경(玉京)124에서 부르거든  
 학(鶴)을 불러 명(命)에 하야 옥경루(玉京樓)에 솟아 올라  
 상제(上帝) 전(前)에 시위타가 다시 세상(世上) 하강(下降)125커던  
 새 생(生) 인연(因緣) 되렸만은 즐길 환(歡) 자(字) 간곳 없고  
 환복환자(鰥復鰥字) 이에 미쳐 무정(無情)하게 가는 세월(歲月)  
 시름 수(愁) 자(字) 벗을 삼아 춘풍(春風) 도리화(桃李花)이야와  
 추무(秋霧)126 오동(梧桐) 엽낙시(葉落時)127에 시름 수(愁) 자(字) 술을 놓으니  
 동해(東海) 수(水)가 부족(不足)일세 의약세를 두는 뜻을  
 만약(萬若) 사람 병(病)이 나며 신농씨(神農氏)128의 기천 술법(術法)  
 제중신편(濟衆新編)129 상고(詳考)130하여 청낭(靑囊)131 금단(金丹)132 줄은 약(藥)을  
 단정의 찢어내어 병(病)든 사람 구하여서  
 불로장생(不老長生)133 하려하고 천추만세(千秋萬歲)134 전하건만은

편자 같은 용흔이원 이 세상(世上)에 다시 없어  
 장생불사(長生不死)135 하는 약(藥)을 구해내기 어려우니  
 병(病)든 사람 속절없다 정서(情緒)를 두는 뜻은  
 팔팔(八八) 육십(六十) 사개상과 삼백(三百) 팔십(八十) 사흉(四凶) 중(中)의  
 육십(六十) 육갑(六甲)136 이십사위(二十四位) 선후(先後) 천수(天壽) 맞추어서  
 길(吉) 즉(卽) 길(吉) 궤 흉(凶) 중(中) 흉(凶) 궤 명백(明白)하게 얻어내어  
 길흉화복(吉凶禍福)137 갈리어서 피흉추길(避凶趨吉)138 하러하고  
 이제까지 젊건많은 음양이수(陰陽理數) 달리 못해  
 피흉취길(避凶取吉)139 잘못하니 음양(陰陽) 서도 알수 없다  
 수명(壽命) 장단(長短) 부귀(富貴) 복록(福祿)140 천생(天生) 팔자(八字) 타고난 일  
 수원수구(誰怨誰咎)141 하잔 말과 막비(莫非)142 천수(天壽) 어찌할고  
 천지(天地) 간(間) 만물(萬物) 중(中)의 유인최귀(惟人最貴)143 이른 바는  
 사람마다 아는바라 어찌하여 최귀(最貴)144한고  
 삼강오륜(三綱五倫)145 으뜸이오 인의예지(仁義禮智)146 근본(根本)이라  
 효제충신(孝悌忠信)147 힘을 써서 염치(廉恥)148 행실(行實) 분명(分明)함이  
 유인최귀(惟人最貴) 이름이라 이렇듯이 최귀(最貴)함◆  
 미물(微物)149 마다 못하는고 백년(百年) 세월(歲月) 다 못가서  
 이 세상(世上)을 하직(下直)150하며 다시 오기 어렵지만  
 춘성(春性)의 초목(草木) 잎은 금년(今年) 봄에 피어나서  
 추(秋) 즉(卽) 엽탈(葉脫) 되어다가 춘부 영화(榮華) 다시 되어  
 철철이 생동(生動)151할제 춘풍(春風) 삼월(三月) 한식절(寒食節)152에  
 좌우(左右) 산천(山川) 둘러보니 두견화(杜鵑花) 만발(滿發)하여  
 만자 천봉(千峰) 되었는데 탐화봉접(探花蜂蝶)153 날아들어  
 춘담(春淡)을 자랑하고 강남(江南) 천리(千里) 현조새는  
 쌍쌍(雙雙)이 짝을 지어 옛집을 찾아와서  
 주인(主人)께 하례(賀禮)154하고 남산(南山)에 높이 앉아  
 웅창자화(雄唱雌和)155 우지진듯 새야 새야 현조새야  
 작년(昨年) 이때 네가 와서 새끼쳐 길러낼제  
 자모 상포 남도 오야 구구156 상낙(相樂)157 길기다가  
 네 곳으로 갔던 것이 이제 다시 오것만은  
 이 집 주인(主人) 하나되는 북망산(北邙山)158 가노라고  
 팔자(八字) 평정(平正) 앞세우고 유대(留待)꾼159 삼십명(三十名)이  
 발맞춰 메어갈제 앞에 선농 회가(回駕)160 소리  
 어허 넘차 이제 가면 어느 천년(千年) 다시 올고  
 일곡(一曲) 이곡(二曲) 슬피 불러 반날 못되어 가던 길이  
 이제까지 아니 오니 저 제비 거동(舉動) 보소  
 이윅고 자세 뜯◆ 이리 날면 저리 날면  
 둘이 서로 짓는 모양(模樣) 주인(主人)하나 보지 못해



슬퍼함을 버금은 듯 각색(各色) 비금(飛禽)161 내왕(來往)162할제  
 뒷산 송정(松亭)163 바라보니 부공새164 날아와서  
 외로이 우두커니 앉아 서러웁게 울음 울되  
 지지 북궁 지집 죽어 이러하제 우는구나  
 새야 새야 북궁새야 너의 울음 괴상(怪狀)하다  
 너의 울음 잠깐 그쳐 내말 잠깐 들어봐라  
 다른 새를 둘러보니 웅비(雄飛)165 종자(從者)166 따라갈제  
 양류(楊柳)167 청풍(淸風) 행화촌(杏花村)168의 비거비래(飛去飛來)169 짝을 불러  
 구십춘광(九十春光)170 희롱(戲弄)한다 상서(祥瑞)171로운 봉황(鳳凰)새는  
 오색(五色) 빛을 갖추어서 인(仁)과 덕(德)을 몸에 지고  
 자웅(雌雄)172이 짝을 지어 오동(梧桐) 지상(枝上) 깃드러여  
 상서(祥瑞)로운 울음 울고 태평성대(太平聖代) 거동(舉動)하여  
 기호관이 되어 있고 눈빛 같은 백학(白鶴) 새는  
 현상호의(玄裳綺衣)173 털쳐 입고 청학(靑鶴) 백학(白鶴) 짝을 지어  
 운조 만이 날아 와서 철장 노송(老松)174 집을 지어  
 순풍(順風)에 춤을 추고 맑은 소리 우지지어  
 선인(仙人) 경가(鏡架) 되어 있고 평산십이 백구(白鷗)새는  
 쌍쌍(雙雙)이 짝을 지어 호호망망(浩浩茫茫)175 창파(滄波)176 상(上)에  
 잠잠(潛潛) 막막(漠漠) 등등떠서 노던기 옛보면서  
 어숙반이 되어 있고 무리 만든 회오리는  
 모래 위에 잠자다가 사람 자취 글미어서  
 짝을 지어 훌쩍 날아 범범(泛泛) 수중(水中) 떠어놀제  
 만고(萬古) 시름 다 버리고 녹수(綠水) 청풍(淸風) 희롱(戲弄)하면  
 벽계옹(碧溪翁)177이 피어있고 문체(文體) 좋은 원앙(鴛鴦)새는  
 장운이 짝을 지어 둘이 서로 얽혀 매어  
 녹수(綠水) 청강(淸江) 흐른 물에 주야(晝夜) 동술 떠서노◆  
 예전에도 이른 말이 원앙(鴛鴦) 새를 부러워하여  
 장한가(長恨歌)178를 지었으되 재천원작원앙(在天願作鴛鴦鳥)179 하고  
 재지원위연이지(在地願爲連理枝)180하제 이런 말도 있었거늘  
 너는 어찌 혼자 와서 울음 소리 그려하여  
 너의 소리 들어보니 너도 역시 상처(喪妻)181한 듯  
 새김생182 삼백(三百) 중(中)의 너의 정곡 가공하다  
 미물(微物) 도사 저러한가 사람에서 다름없다  
 일락서산(日落西山)183 황혼(黃昏)되고 월중(月中) 동영(東影) 삼경(三更)되니  
 삼경(三更) 야월(夜月) 두견(杜鵑) 새는 뒷동산에 슬피우니  
 소리 소리 원한(怨恨)일세 새야 새야 두견(杜鵑) 새야  
 너는 어찌 슬피우뇨 네가 슬피 우는 모양(模樣)  
 나와 같이 일반(一般)일다 초회왕(楚懷王)184의 고혼(孤魂)185인가

너의 몸의 붙여와서 곳곳 마다 다니면서  
 서러운 회포(懷抱) 전(傳)하는야 너무 싫게 울지마라  
 남풍(南風) 사월(四月) 개화절(開花節)186에 금의공자(金衣公子)187 저 꾀꼬리  
 양유 척척 번응이에 비거비래(飛去飛來) 벗 부르니  
 환우(患憂) 성(聲)이 미미(微微)188하다 새야 새야 황조(黃鳥)새야  
 너는 어찌 무사(無事)하야 저럴듯이 시름 없노  
 너 모양(模樣)을 자세히 보니 작년(昨年) 이때 보던 새로  
 그 사이에 어디 갔다 이제 다시 또 왔느냐  
 오월(五月)이라 천중절(天中節)189◆ 일지(一枝) 일지(一枝) 창화(昌花)한다  
 옥창 앵두 붉어있고 만수(萬壽) 청음(淸陰) 그늘 속에  
 오월(五月) 원조 우는 님이 승지(昇地) 하지(下地) 옮기면서  
 태평(太平) 노래 하는구나 너는 어찌 한가(閑暇)하여  
 이렇듯이 노래하노 설움있는 사람 마음  
 너무 그리 톱지마라 또 한편 바로 보니  
 수양(垂楊)190 청청(靑靑) 버들가지 추천(鞦韆)191 줄을 후려내고  
 남속촌 미인(美人)들이 반선희(半仙戲)192로 희롱(戲弄)하네  
 가소롭다 죽는 인생(人生) 저런 풍경(風景) 모느는고  
 칠월(七月)이라 칠석일(七夕日)에 견우직녀(牽牛織女) 상봉(相逢)할때  
 오작(烏鵲)193이 다리놀이 일도상강(一道上江) 건너가서  
 일주년(一週年) 못 본 정회(情懷)194 오경(五更) 야반(夜半) 나뻐보고  
 각분(各分) 동서(東西) 헤어질 때 명년(明年)195 기약(期約) 다시하며  
 세상(世相) 인간(人間) 한번 죽어 불부(佛部) 환생(還生) 우셔더라  
 오동(梧桐) 엽락(葉落) 금정(金正)196 시(時)에 실솔(蟋蟀) 성(聲)이 자자하되  
 벗짜라고 재촉하니 이웃집 저 나부(懶婦)가  
 아이 품고 잠자다가 깜짝 놀라 일어나서  
 슬프다 우리 부인(婦人) 벗짤 줄을 모르는고  
 춘남(春南)197 추북(秋北)198 저 기러기 월남(月南) 장천(長天) 높이 떠서  
 슬피 울고 가는구나 저기 가는 저 기러기  
 어느 사람 편지(片紙) 전(傳)하고 어느 곳을 향(向)하느냐  
 소문(所聞) 편지(片紙) 전(傳)하던 곳에 북회산(北回山)을 향(向)하느냐  
 북회산(北回山)을 향(向)하거던 북망산(北邙山) 찾아가서  
 우리 부인(婦人) 유인 찾아 나의 수심(愁心) 전해주면  
 아이들 어미 찾아 상탁(床卓)199 앞에 의지하야  
 엄마 엄마 슬피 불러 애통(哀痛)200 망극(罔極) 하는 거동(舉動)  
 낯나이 전(傳)할소냐 창당한 반공중(半空中)의  
 빈 소리 뿐이로다  
 추풍(秋風)은 소소하◆ 낙엽(落葉)은 단정(端正)한데  
 창전(窓前)의 국화(菊花) 꽃은 작년 이때 피던 꽃이

또 다시 피었구나

꽃은 꽃은 국화(菊花) 꽃아 온갖 백초(百草)201 둘러보니  
 서리 앞에 낙엽(落葉)되어 소소하게 지것만은  
 너는 어찌 서리 앞에 무슨 정기(精氣)202 머금어서  
 작작(灼灼)203히 피었는고 삼경취황(三徑就荒)204 하였으되  
 송국유존(松菊猶存)205 이라더니 진처사(晉處士)206는 어디 가고  
 너 사랑을 모르느냐 가련(可憐) 왕손(王孫) 귀물(貴物) 지는  
 일로 좇아 이람이도 일년(一年) 삼백육십(三百六十) 일(日)은  
 유수(流水)207같이 지나가고 세시(歲時)208 가절(佳節)209 당(當)하여서  
 만호(萬戶)210 천운(天運)211 돌보니 송구영신(送舊迎新)212 좋아하네  
 어미 있는 아이들은 기복(祈福)213 차례214 불작시면  
 청색(靑色) 홍색(紅色) 좋은 가암215 곱게 곱게 지어입고  
 삼삼오오(三三五五)216 때를 지어 앞들의 디말타기  
 뒷 동산에 연뒹우며 세환(世患)217 신구(新舊) 노래하고  
 남북촌(南北村) 그 소들은 어깨 결의 작반(作伴)218하야  
 이집 저집 다니면서 세시복랍(歲時伏臘)219 흥(興)을 부쳐  
 팽양포고(烹羊炮羔)220 술 마시며 신년(新年) 만복(萬福) 하려하고  
 동서촌(東西村) 부녀(婦女)들은 좋은 의복(衣服) 갖춰입고  
 앞집에 가 상웃치기 뒷집에 가 편웃놀이  
 송구영신(送舊迎新)221 즐기던◆ 슬프다 우리 부인(婦人)  
 공산(空山) 적적(寂寂) 무인처(無人處)에 뉘로다려 벗하는고  
 어여쁜 우리 아이 좋은 의복(衣服) 고사(固辭)하고  
 춘포(春布)222 상복(喪服)223 덜쳐 입고 송탁 앞에 의지하여  
 애통(哀慟) 망극(罔極) 하는 거동 참아보기 어색하여  
 원중의 매화(梅花) 꽃은 설중(雪中)에 피어날제  
 양류(楊柳)다려 봄을 다뒹 먼저 피어 만발(滿發)하여  
 동피(冬避) 춘광(春光) 하였구나 각색(各色) 만물(萬物) 불작시면  
 철철이 때를 찾아 이럴듯이 화창(和暢)커든  
 어찌하여 사람에는 환생(還生)할 줄 모르는고  
 하지일(夏至日)224 긴긴 날의 호요 없시 혼자 앉아  
 만괵수(萬鱗水)를 품었은들 어느 뉘가 아도 보며  
 동지야(冬至夜)225 긴긴 밤의 만단(萬端)226 회포(懷抱) 품었은들  
 어느 뉘가 위로할까 전전반측(輾轉反側)227 잠 못 들어  
 담배대를 벗을 삼아 이리 저리 창단제홀  
 중처(中處)의 결연 달은 처량(淒涼)하게 넘어가네  
 겨우 겨우 한 잠 들어 꿈 하나 얻을적에  
 동서촌(東西村) 달이 들은 새벽 재촉 하노라고  
 햇대치고 우는 소리 어둔 꿈 깨웠구나

닭아 닭아 우지마라 시간(時間) 재촉 과이한다  
 날이 새면 아침하니 뉘 손으로 아침하며  
 뉘 손으로 물어오노 이렇듯이 노래할제  
 곁에 앉아 들어보니 듣는 사람 비참(悲慘)하다  
 이 친구야 그리마라 아무리 서러워 하든  
 죽는 사람 당(當)할 손가 한번 죽어 영결(永訣)228하면  
 천만년(千萬年)이 지나가도 다시 오지 못하거늘  
 사는 세월(歲月) 보게 되면 이렇듯이 서레해도  
 겨울이면 뜨신 방과 여름이면 그늘 치◆  
 편(便)는 대로 거처(居處)하니 사는 사람 못 살라고  
 이 친구야 그 말 마소 예전 사기 아니 받소  
 주(周) 문왕(文王)229이 천하(天下) 얻어 억조창생(億兆蒼生)230 건지려고  
 어진 정사(政事) 버물어서 사해만방(四海萬邦)231 살필 적에  
 환과고독(鰥寡孤獨)232 사궁인(四窮人)233을 먼저 찾아 안보(安保)하니  
 글로 두고 불지라고 천지(天地) 간(間)의 궁(窮)한 사람  
 사궁(四窮) 밖에 또 있는가 또한말 들어보소  
 인지무처 내는 것은 옥지무당(玉卮無當)234 같다하니  
 그아니 가련(可憐)한가 옛날 길가 받을 적의  
 그 처(妻) 점심 가져와서 부부(夫婦) 서로 공경(恭敬)235하기  
 손님같이 대접(待接)하니 나는 ∞영 받들매들  
 뉘가 와서 공경(恭敬)하리 내가 일전(日前) 상처(喪妻) 자의  
 한 곳에 지내다가 어떠한 백수(白首)236 노인(老人)  
 우두커니 혼자 앉아 비회(悲懷)237를 금치 못해  
 양안(兩眼)238의 두 줄 눈물 비오듯이 솟아나면  
 양천통곡(仰天痛哭)239 하는 모양(模樣) 낮빛이 변(變)한듯  
 산천(山川)이 느끼는 듯 강수(江水)가 오려한 듯  
 오장(五臟)이 무너진 듯 슬퍼함이 이러하거늘  
 여보시오 이 노인요 어찌 그리 슬퍼하오  
 저 노인 거동(舉動)보소 여보 내 말 들어보소  
 자식(子息) 한 개 만득(晚得)240하니 세상(世上)이 니 혼자듯  
 금옥(金玉)241 같이 사랑하니 금동(金童)이라 이름할까  
 옥동(玉童)이라 이름할까 하늘 같이 어질거늘  
 태산(泰山)같이 굳세거라 일월성신(日月星辰)242 전기떠어  
 이십팔수(二十八宿)243 모든 성(星)과 너의 몸의 두호(斗護)244하야  
 동방석245의 명(命)을 타고 곽분양246의 복(福)을 받아  
 동서남북(東西南北) 도(道)이나마 삼재팔난(三災八難)247 없게 하고  
 기주의복 일왈슬을 만세(萬歲) 만세(萬歲) 하였어라  
 얼른 속히 장성(長成)하여 공맹도(孔孟道)248의 들어서로

삼강오륜(三綱五倫) 으뜸으로 의친(依親) 경명(敬命)249 하는 법(法)과  
 충국도(忠國道)를 하는 도(道)를 저저히 비운 후(後)에  
 수신제가(修身齊家)250 하였으니 입신양명(立身揚名)251 하온 후(後)에  
 감고(甘苦)252 영화(榮華) 되올이도 너의 덕에 영화(榮華) 보자  
 태산(泰山)같이 믿어두고 이렇듯이 길렀더니  
 창천(蒼天)이 무정(無情)하고 지부왕(地府王)253이 사정(事情) 없어  
 우리 아이 데려 갔소 천지신명(天地神明)254 소소하니  
 유독 나를 몹시 하시고 가련(可憐)하다 이 신세(身世)여  
 뉘를 믿고 부지(扶持)255하면 원통(冤痛)하다 우리 아이  
 네 갈 곳이 어드메야 포발꾼들 가소(可笑)롭다  
 나는 만약 죽어지면 누가 있어 물어 주면  
 무덤 위에 풀이 나면 뉘 손으로 끊어주노  
 천지(天地) 간(間)의 궁인(窮人)되어 이렇듯이 서럽건만은  
 문왕(文王) 같은 성군(聖君)없어 자세히 못 살피리  
 어느 데 의탁(依託)256할고 여보시오 이 노인요  
 너무 그리 서러워 마소 참혹지상(慘酷之像) 말할진데  
 일부 청양 없건만은 세상(世上) 사람 살펴보며  
 그런데도 허다(許多)하오 만고(萬古) 성환 공부자(孔夫子)257도  
 안전(案前) 참변(慘變) 당하였고 안시 같이 여진 이도  
 한명 거역(拒逆) 못하여서 요사(夭死)258하여 돌아가니  
 천생(天生) 만민(萬民) 하실 적에 정한 명(命)을 어찌하오  
 너무 그리 애통(哀痛)마오 천우신조(天佑神助)259 하고보면  
 세대(世代) 이을 자식(子息)이난 뜻 밖에 있으리다  
 이렇듯이 이웃하고 또 한 곳에 다다르니  
 어떠한 아이하나 의상(衣裳)은 남루(襤褸)260하고  
 용모(容貌)는 초체(憔悴)한데 술성 통곡(痛哭) 하는 말이  
 슬프다 우리 부모(父母) 어느 곳에 가 계시오  
 앞 남산(南山) 나뭇잎과 뒷 동산 꽃 봉우리는  
 작년(昨年) 이때 피던 것이 금년(今年) 다시 피것만은  
 어찌하여 우리 부모(父母) 한번 가니 못 오르고  
 고지(叩地)261 하천(誆天)262 슬픈 소리 구처(區處)에 사무친듯  
 아이야 너의 부모(父母) 너를 두고 어디 갔노  
 보는 사람 강내하다 저 아이 대답(對答)하되  
 저의 팔자(八字) 무상(無常)263하고 죄악(罪惡)이 심중(深重)하여  
 부모(父母) 양위(兩位) 구몰(俱沒)하니 망극지통(罔極之痛) 가이 없어  
 이렇듯이 통곡(痛哭)해도 유명(幽明)264이 알음 없이  
 한 말씀 대답(對答) 없어 이다지 모르시니  
 망극(罔極)하여 못살겠소 우리 동유(童幼) 둘러보니

당상(堂上) 부모(父母) 구준하여 태평(太平) 화락(和樂)265 줄건만은  
 나는 어찌 불초(不肖)266하여 유아무부(幼而無父)267 고가(孤家)되어  
 이렇듯이 곤궁(困窮)하고 예전 사기(事記) 들어보니  
 황항의 선침함과 육적의 회궤하니  
 사책의 술여여서 이제까지 젊건마는  
 나는 남의 자식(子息)되어 망극(罔極)한 부모(父母) 은혜(恩惠)  
 만분지일(萬分之一)268이라도 갚지 못하오니  
 원통(冤痛)한 마음으난 어느 척에 기옥(起屋)하면  
 철천(徹天)269 여한(餘恨) 되는 이를 어느 곳에 푸오리까  
 일월(日月)이 광명(光明)하나 수물이 가리여서  
 광명(光明)한 줄 모르압고 천지(天地) 광대(廣大)하나  
 의탁(依託)할 곳 바이 없어서 광대(廣大)한 줄 모르네다  
 무슨 쇠약(衰弱) 지중(至重)하여 연기(年期) 불과 십세(十歲)되어  
 부모(父母) 의제(義弟) 양화(釀禍)270미처 망극지통(罔極之痛) 당하오니  
 어찌하여 사오리까 아이야 너의 정곡(情曲)271  
 가련(可憐) 참혹(慘酷) 하다마는 죽는 것에 비할손가  
 일생일사(一生一死)272 되는 것은 사람 마다 있는 이로  
 너무 그리 애통마라 이렇듯이 말을하고  
 또 한 곳에 지나더니 어떤 부인(婦人) 소복(素服)273하고  
 아이를 곁에 두고 슬퍼하게 노래하되  
 천생(天生) 만민(萬民) 하실 적에 어떤 사람 팔자(八字) 좋게  
 수부귀다남자(壽富貴多男子)274다 극락(極樂) 세월(歲月) 점지275하고  
 나는 팔자(八字) 무슨 죄(罪)로 이러하게 망극(罔極)하고  
 신명(神明)한 하나님은 나의 정곡(情曲) 살피소서  
 여자(女子) 일신(一身) 가소(可笑)롭다 규중(閨中)276의 심처(深處)277하여  
 부모님 은덕(恩德)으로 곧게 곧게 장양회◆  
 선왕지예(先王之禮)278 법(法)을 좇아 이십(二十)의 성인(成人)하여  
 친당(親堂)279을 멀리 하고 사람 하나 따라와서  
 사생(死生)280 고락(苦樂)281 의탁(依託)하고 천만(千萬)을 믿었더니  
 믿음 마음 간 곳 없고 반백년(半百年)282이 못 다가서  
 일진광풍(一陣狂風)283 일어났네 일조일석(一朝一夕)284 천만의외  
 천고(千古) 연결 이 웬일인고 슬프다 아이들아  
 너희들은 어찌 살며 망극(罔極)하다 이 내 신세(身世)  
 뉘를 믿고 부지(扶持)하며 원통(冤痛)하다 죽는 인사(人事)  
 어느 곳이 극락(極樂)되어 천자(天子) 진속(塵俗)285 떨쳐두고  
 갈 곳이 어디던고 옥황상제(玉皇上帝)286 명(命)을 받아  
 백옥루(白玉樓)287에 솟아올라 상제(上帝)288 전(前)의 시위(尸位)타가  
 인간(人間) 수복(壽福)289 미편(未便)할제 수명(壽命) 복록(福祿) 의걸하여

세상(世上) 강상 다시 되어 산생(產生) 연분(緣分) 맺으라고  
 후생(後生) 길로 오라던가 삼산(三山)290 십주(十住)291 찾아가서  
 삼천계를 밟아들어 기화요초(琪花瑤草)292 만발(滿發)한되  
 여러 선관(仙官) 놀던 곳에 선이 따라 가게신고  
 시중 처사(處士) 태백처로 기경 상천(上僊)293 하려하고  
 채석강 명월(明月) 야회(夜會) 청풍(淸風) 명월(明月) 희롱(戲弄)하다가  
 돌아오기 잊었던가 한인유후 자방처(子方處)로  
 인간 사우 마다하고 적송자(赤松子)294를 따르려고  
 이 세상(世上)을 버렸던가 진시왕(秦始皇)295의 위치(位處)로  
 불사약(不死藥)296을 구하려고 삼신산(三神山)을 가려다가  
 길을 잘못 찾아들어 지부(地府)297 중(中)에 들어가니  
 그 곳이가 극락(極樂)되어 돌아올 줄 모르는가  
 극락세계(極樂世界) 그 어디며 지부국(地府國)298이 어디넌고  
 무정(無情)한 지부왕(地府王)은 남의 사정(事情) 절박(切迫)함을  
 그다지도 모르는가 명월(明月) 사창(紗窓)299 빗겨 앉아  
 한량(限量) 없는 품은 회포(懷抱) 소회(所懷)할 곳 전혀 없어  
 악전 탄식(歎息) 그리할제 말이 장공(長空) 일편월(一片月)은  
 서산(西山)에 걸쳐 있고 뒷 동산의 자음새는  
 무슨 설움 품었기로 저럴듯이 슬피울어  
 소리 소리 피눈물로 꽃 가지로 적시는고  
 아마도 너의 회포(懷抱) 나와 같이 일반(一般)인듯  
 수수하게 부는 바람 창전(窓前)에 와 소슬300하고  
 양양하게 흐른 물은 구부 구부 오열(嗚咽)한다  
 북두(北斗) 가인(佳人) 쌍(雙) 누유는 무슨 설움 품었으며  
 인생(人生) 칠십(七十) 고래희(古來稀)301와 왕손귀불귀(王孫歸不歸)302란 글은  
 어느 문장(文章) 지었던고 일생(一生) 영욕(榮辱)303 함께하고  
 백년(百年) 고락(苦樂) 의탁(依託)하여 오복(五福)304 겸전(兼全)305 바랬더니  
 오복(五福) 겸전(兼全) 고사하고 붕성지통(崩城之痛)306 이 왜일고  
 창천(蒼天)도 무지(無智)하고 귀신(鬼神)도 야속(野俗)하다  
 슬프다 아이들아 너희 들은 무슨 팔자(八字)  
 유아무부(幼而無父) 고(孤)가되고 나는 어찌 무슨 팔자(八字)  
 노이무부(老而無夫)307 과(寡)가되어 이럴듯이 의참하고  
 온갖 만사(萬事) 생각(生角)하니 어둑 심사(心思) 들데 없다  
 북망산(北邙山) 굽어 보니 실안이 들erner데  
 세우(細雨) 소소 우는 비는 너희 부친(父親) 눈물이다  
 아마도 너희 부친(父親) 사불명목(死不瞑目)308 하였도다  
 공산(空山) 홀로 누웠은들 어느 친구 찾아가면  
 우리 이리 망극(罔極)한들 너의 부친(父親) 알음없어



찾아올 줄 모르신다 벽해(碧海)309가 상전(桑田)310되고  
 태산(泰山)이 평지(平地)되면 다시 오자 하였던가  
 강산(江山) 의구(依舊)311 인여몽(人如夢)은 이를 두고 이름인가  
 세월(歲月) 무정(無情) 여류(如流)하여 양춘(陽春)312 세계(世界) 또 닥치니  
 초목군생(草木群生)313 다 즐기네 시내가의 푸른 버들  
 바람결의 모뭇계여 춘광(春光)을 뛰어있고  
 산두(山頭)의 꽃봉오리는 난만(爛漫)314히 피었는데  
 백설(白雪) 같은 호접(胡蝶)315으로 꽃봉우리를 넘고 날고  
 완환하는 손님에는 무리 무리 둔취(屯聚)316하여  
 이등 저등 다니면서 춘일(春日) 가기(佳期)317 흥을 부쳐  
 좋은 풍류(風流) 노는 손님 누구 누구 모였던고  
 가련(可憐)하다 우리 님은 저런 놀음 모르시고  
 세상(世上) 풍류(風流) 마다하고 낙릉(樂陵) 도원(桃園)318 복숭아 꽃을  
 그물 치고 구경하던가 의참하다 이내 팔자(八字)  
 뉘를 믿고 살잔말고 문전(門前)에 자는 손님  
 누가있어 접대(接待)하면 선안산에 있는 서책(書冊)  
 뉘 손으로 펴서보며 살림살이 범백사(凡百事)는  
 뉘 손다려 의논(議論)하며 논갈기와 밭갈기는  
 뉘 손으로 하잔말고 어천만사(於千萬事)319 생각(生角)하니  
 아득하여 못 살겠네 산해(山海)같이 쌓인 설움  
 어느 곳에 풀어 놓고 누수(漏水) 방방(坊坊) 솟아나서  
 배개 념의 모시되고 한숨지어 바람되어  
 후원 숙임 소소하다 죽는 세월(歲月) 따르지 못해  
 살자한들 어찌 살고 오매불망(寤寐不忘)320 생각(生角)하니  
 어의의한 얼굴과 쟁쟁한 말소리는  
 듣는듯이 보는듯이 여광여취(如狂如醉)321 하것만은  
 유명(幽明)이 허수322하여 이럴듯이 모르시네  
 슬프다 아이들아 너희 들은 얼른 커서  
 요조숙녀(窈窕淑女) 취처(娶妻)323하여 백년가약(百年佳約)324 기리할제  
 단산에 놀던 봉황(鳳凰) 백오(白鳥)325에 깃든듯이  
 빈취가 적소(適所)에 있는 듯이 원앙(鴛鴦)이 녹수(綠水)네 놀던듯이  
 여천지(如天地) 무궁(無窮)토록 극락(極樂) 세월(歲月) 보자더라  
 이럴듯이 슬퍼하니 철석(鐵石)같은 간장(肝腸)에도  
 비창(悲愴)함이 절로 나네 내가 이제 당해보니  
 나의 회포(懷抱) 같은지라 세상(世上) 사람 사는 재미  
 금슬지락(琴瑟之樂)326 그 밖에도 무슨 낙(樂)이 또 있는가  
 이 친구가 그 말 말고 얼른 다시 속현(續絃)327하야  
 금슬지락(琴瑟之樂) 다시 되면 화촉(華燭)328 동방(洞房) 새 빛 나고



탄농성이 칭아하면 그 아니 줄을 손가  
 장부(丈夫) 명색(名色) 하는 인사(人事) 저렇듯이 슬퍼하면  
 남에게 비소(誹笑)되리 너무 그리 말으시라  
 어허 여보 이친구야 그 말이사 옳소 만은  
 설령 다시 속현(續絃)한들 기신(起身) 공가(空家) 하였시오  
 기구(器具) 여지(餘地) 하여하니 어찌 아니 오려할까  
 남의 말씀 하기 좋아 그런 말씀 하지만은  
 시세(時勢) 앞에 당해 보면 나의 회포(懷抱) 아오리다  
 이렇듯이 말씀하다가 무루하게 돌아와서  
 부인(婦人)데려 마주 앉아 조문(弔文) 가서 들은 노래  
 날날이 설화(說話)하되 여차여차 하는 노래  
 일변(一邊)은 비감(悲感)329하나 일변(一邊)은 우습하되  
 저 부인(婦人)의 거동(舉動)보소 정색(正色)하고 하는 말이  
 우습기 웬 말이요 예전 사기 아니 봤소  
 부부 있는 연후(然後)에사 부자(父子) 형제(兄弟) 있다하니  
 그 아내가 혈후330하면 백년가약(百年佳約) 정할 적에  
 미작이 인도(引導)하고 부모(父母)의 명령(命令)받아  
 깃든 언약(言約) 굳은 언약(言約) 전안석(奠雁席)331에 미세하고  
 납폐(納幣)332 친영(親迎)333 하였으니 어찌 아니 소중한오  
 남은 심사(心思) 비창(悲愴)한데 우습기가 웬일이요  
 옛적에도 성인(聖人)들이 일유(儒)를 가르칠때  
 삼강오륜(三綱五倫) 대강(對講) 영화(榮華) 사단칠정(四端七情)334 있는 법을  
 자세히 일렀거늘 삼강오륜(三綱五倫) 끊어지고  
 사단칠정(四端七情) 없어지면 어찌하여 사람이오  
 미물(微物)이라 하는 것도 만약 짝을 잃고 보면  
 슬우지탄335 있거시늘 하물며 사람이야  
 미물(微物) 중에 비하리있가 여라 인(人)의 상사(相思)의도  
 측은(惻隱)시수 일것이늘 하물며 부부지간(夫婦之間)  
 상의(相議) 상락(相樂) 이을지되 이성지합(異性之合) 부부되어  
 백년(百年) 고락(苦樂) 같이하며 자식(子息) 낳아 세대(世代)이어  
 조상(祖上) 향화(香火) 받드시니 그 아내가 혈후하면  
 감지(甘旨)336을 바수어서 구고(舅姑)337를 받드시고  
 방적(紡績) 직임(織紵)338 힘을 써서 군자(君子) 건져 받드시니  
 그 아내가 혈후하오 남자 이력(履歷) 보게 되면  
 부어시가 어렵하오 상처(喪妻)라고 하고 보면  
 장사(葬事)339도 하듯 말듯 상(喪)내가기 의논하며  
 여기저기 구혼(求婚)하면 고은 댁(宅) 데려다가  
 신정(新情)에 재미붙여 혹어후처(惑於後妻)340 하올 적에

이전(以前) 처(妻)와 살던 정을 추호(秋毫) 만침 생각(生角)할가  
 그 중(中)에도 볼족하여 홍화촌(紅花村)의 주죽장과  
 화류장(花柳場)의 일등(一等) 내색 여기저기 있는 곳에  
 심심하면 놀러가세 희롱(戲弄)하면 노름 놀지  
 그 말이사 율소이다 속담(俗談)에 이른 말이  
 처자(妻子)341라 하는 것은 골골마다 있다하니  
 대장부(大丈夫)의 천변인가 아녀자(兒女子)에 관계되어  
 소소 곡절(曲折) 생각(生角)할까 내말 잠깐 들어 보소  
 예양(豫讓)342이란 사람이난 나라를 섬기다가  
 국운(國運)이 불행(不幸)하여 국파 군방(群邦) 하온 후(後)의  
 나라 원수(怨讐) 갚으려고 칠신위려(漆身爲厲)343 병인(病人)되고  
 탐탄위아(吞炭爲啞)344 병어리 되어 행걸어시(行乞於市)345할제  
 동거(同居)하던 그 아내는 가장(家長)인줄 몰랐으되  
 그 친구는 알아보고 손목잡고 울었으니  
 그를 두고 보게 되며 그 아내가 소중하며  
 오기(吳起)346란 사람의난 그 아내를 죽인 후에  
 노(魯)347나라 대장(大將)되어 큰 공명(功名)을 세웠으니  
 그런 일도 있거시늘 아녀자(兒女子)를 생각(生角)하니  
 그던하게 비참(悲慘)할제 저 부인(婦人)의 거동(舉動)보소  
 자리를 옮겨 앉아 공손(恭遜)히 대답(對答)하되  
 그런 말씀 할 줄 아오 예아니로 말할진데  
 얼굴이 병인(病人)되고 말소리 병어리되어  
 환형(換形) 변태(變態) 되었거늘 그 아내를 어찌 알면  
 오기(吳起)를 이을진데 오륜(五倫)은 전폐(全閉)하고  
 공명(功名)만 아는바지 중씨문에 다일적에  
 어머니 상사(喪事) 당했으되 분상(奔喪)348하지 아니하거늘  
 중씨가 미쳤으니 오륜(五倫)에 벗어났고  
 노(魯)나라 대장될 때 그 아내를 죽인 후(後)에  
 대장군(大將軍) 이름 떠서 공명(功名)을 이뤘으나  
 남에게 참소(讒訴)349받아 타국(他國)에 도망가니  
 오기(吳起) 이력(履歷) 율소있가 여자(女子) 행실(行實) 들어보소  
 삼종지도(三從之道)350 지키어서 대가(大家) 종부(宗婦) 하옵다가  
 급기장야 하여서는 원(遠) 부모(父母) 형제(兄弟)하고  
 적인종부(適人從夫)351 의탁(依託)하여 생즉동침(生卽同寢)352 같이하고  
 사즉동혈(死卽同穴)353 하자다가 불행하여 부사(夫死)하며  
 붕성지통(崩城之痛) 가이 없어 일촌(一村) 간장(肝腸) 망극(罔極) 중(中)에  
 빙설(氷雪)같은 마음으로 열녀부경이부(烈女不更二夫)354 심(心)을  
 가슴 중(中)에 굳게 두고 자식에게 의탁(依託)하야

종신(終身)토록 수절(守節)355하니 그 아내가 혈후하오  
 그 양반의 마음에는 백년(百年) 고락(苦樂) 함께다가  
 천만(千萬) 의외(意外) 몽내(夢內) 간(間)의 유명지간(幽明之間) 갈라져서  
 영결(永訣) 종천(終天) 이별(離別)하니 측은지심(惻隱之心)356 간절(懇切)하여  
 그럴듯이 빈참커늘 어찌하여 우습다하오  
 저런 말씀 들을진데 부부유별(夫婦有別)357 지중(至重)358함이  
 오륜(五倫)중의 어찌 들며 아내 죽어 고축(告祝)359할제  
 비도산고(悲悼酸苦)360 부자승감(不自勝堪)361 어찌하여 일렀던고  
 희노애락(喜怒哀樂) 우수사는 어느 곳에 쫓아나오  
 그 말씀을 들을진데 나도 역시 죽어지면  
 측은지심(惻隱之心) 고사하고 눈물 한 점 안내겠소  
 내외(內外) 간(間)에 마주 앉아 이렇듯이 논박(論駁)362타가  
 몇날이 못갈더니 시운(時運)이 불길(不吉)던가  
 귀신(鬼神)이 엿보던가 저 부인(婦人)의 신명(神明)보소  
 우연 득명(得名)하여 선음 수작 하옵다가  
 음홀 등선(登仙)363 하는구나 사죄(謝罪) 불가(不可) 부생(復生)하여  
 초상(初喪) 장사(葬事) 치른 후(後)에 내당(內堂)에 들어가니  
 아이들은 슬퍼하여 어미 불러 의동하여  
 여기 저기 놓인 기계 임자 없어 슬퍼한듯  
 한풍(寒風)이 소소한듯 적적(寂寂) 무인(無人) 같은지라  
 이것 저것 생각(生角)하니 울적한 마음 절로 난다  
 아무것이 상처(喪妻)하여 조문(弔文)가서 노래듣고  
 비소(誹笑)하소 왔던 일이 과연 과연 잘못했네  
 나는 앞에 당해보니 그 친구의 노래보다  
 열 번이나 더 하겠네 정구지역(井臼之役)364 생각(生角)하니  
 적막(寂寞)하기 그지 없고 살림살이 사자하니  
 군속(窘束)365 함토(含吐)366 그지없고 밤이들어 잘라하면  
 잠은 어이 아니오며 한숨은 어이 절로 나노  
 남사스럽지 아니하면 방성통곡(放聲痛哭)367 실컷 울며  
 어와 세상(世上) 사람들아 부모(父母) 효양(孝養) 하는 바는  
 천륜(天倫)368으로 하거니와 부부지간(夫婦之間) 지은 정(情)은  
 과중(過重)하게 대접하여 부디 부디 공경(恭敬)하소  
 여자(女子) 이력(履歷) 보게 되면 살림살이 유무(有無) 간(間)의  
 좋은 음식 좋은 의복(衣服) 마음대로 못해보고  
 알뜰히 노력(勞力)할제 밤이 들면 길쌈 방적(紡績)  
 날이 새면 정구지역(井臼之役) 앓을 여가(餘暇) 없이 하며  
 평생(平生) 고역(苦役) 하는 이를 어여삐 여기시고  
 부화부순(夫和婦順)369 상의(相議)하면 부디 부디 공경(恭敬)하소

이 글 보는 사람들은 웃지 말고 들어 보소  
정신없이 쓰노라고 무리 없고 연맥(緣脈)370 없어  
되구 말구 지었으니 부디 부디 눌러 보소  
비도산고(悲悼酸苦) 부자승감(不自勝堪) 어찌하여 일렀던고  
희노애락(喜怒哀樂) 우수사는 어느 곳에 좃아나오  
그 말씀을 들을진데 나도 역시 죽어지면  
측은지심(惻隱之心) 고사하고 눈물 한 점 만나겠소  
내외(內外) 간(間)의 마주 앉아 이렇듯이 논박(論駁)타가  
몇 날이 못 더니 시운(時運)이 불길(不吉)턴가  
귀신(鬼神)이 엿보던가 저 부인(婦人)의 신명(神明)보소  
우연히 득병(得病)하야 선음 수작 하옵다가  
음홀 등선(登仙) 하는구나 사죄(謝罪) 불가(不可) 부생(復生)하여  
초상(初喪) 장사(葬事) 치른 후(後)에 내당(內堂)에 들어가니  
아이들은 슬퍼하여 어미 불러 애통(哀慟)하고  
여기 저기 놓인 기계 임자 없이 슬퍼한듯  
한풍(寒風)이 소소한 듯 적적(寂寂) 무인(無人) 같은지라  
이것 저것 생각(生角)하니 울적한 마음 절로나네  
아낙것이 상처(喪妻)하여 조문가서 노래 듣고  
비소(誹笑)하고 왔던 일이 과연 과연 잘못했네

[각주]

- 1) 세간(世間) : 세상 일반.
- 2) 일평생(一平生) : 한평생, 살아있는 동안.
- 3) 길흉(吉凶) : 운이 좋고 나쁨.
- 4) 영복(永福) : 천국에서 누리는 영원한 복락.
- 5) 금난(金蘭) : 친구 간의 정이가 매우 두터운 상태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로 『역경(易經)』에 나오는 말이다.
- 6) 관혼상제(冠婚喪祭) : 유교에 입각하여 필요한 4가지의 기본의례로 관례, 혼례, 상례, 제례를 아울러 이르는 말이다.
- 7) 고래(古來) : 예로부터 지금까지의 동안.
- 8) 군유(群有) :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물.
- 9) 부귀영화(富貴榮華) : 재산이 많고 지위가 높으며 귀하게 되어서 세상에 드러나 온갖 영광을 누리는 것을 이른다.
- 10) 빈궁곤(貧窮困) : 가난하고 궁색한 괴로움.
- 11) 팔자(八字) : 사람의 한 평생의 운수를 이르는 말.사주팔자에서 유래한 말로, 사람이 태어난 해와 달과 날과 시간을 간지(干支)로 나타내면 여덟 글자가 되는데, 이 속에 일생의 운명이 정해져 있다고 본다.
- 12) 고루거각(高樓巨閣) : 높고 크게 지은 집.
- 13) 남전(南田) : 남쪽의 밭.
- 14) 북답(北畝) : 북쪽의 논.
- 15) 전지(田地) : 논밭.
- 16) 도비(都鄙) : 서울과 시골을 아울러 이르는 말.
- 17) 호의호식(好衣好食) :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음식을 먹음.
- 18) 촉백(蜀魄) : 두견이.
- 19) 손반(飡飯) : 저녁 밥.
- 20) 적구(積久) : 썩 오래 걸림.
- 21) 충장(充腸) : 배를 채우다.속에 가득하다.
- 22) 당상(堂上) : 조부모나 부모가 거처하는 곳 또는 집의 일부분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 23) 양위(兩位) : 고인이 된 부부 혹은 부모나 부모처럼 섬기는 사람의 내외분.
- 24) 학발(鶴髮) : 두루미의 깃털처럼 희다는 뜻으로, 하얗게 센 머리 또는 그런 사람을 이르는 말이다.
- 25) 한미(寒微) : 가난하고 지체가 변변하지 못함.
- 26) 해로(偕老) : 부부가 한 평생 같이 살며 함께 늙음.
- 27) 슬하(膝下) : 무릎의 아래라는 뜻으로 어버이나 조부모의 보살핌 아래, 주로 부모의 보호를 받는 태두리 안을 이른다.
- 28) 융융(融融) : 화목하고 평화스럽다.
- 29) 문장(文章) : 문장가.
- 30) 효양(孝養) : 아버이를 효성으로 봉양함.
- 31) 용문(龍門) : 중국 황하강 중류에 있는 여울목, 잉어가 이곳을 뛰어 오르면 용이 된다고 전해진다.

- 32) 효제충신(孝悌忠信) : 어버이에 대한 효도, 형제끼리의 우애, 임금에 대한 충성과 벗 사이의 믿음을 통틀어 이르는 말.
- 33) 번화(繁華) : 번성하고 화려하다.
- 34) 심중(深重) : 심각하고 중대하다.
- 35) 구몰(俱沒) : 부모가 모두 세상을 떠남.
- 36) 무강(無疆) : 한이 없다.
- 37) 호천(呼天) : 하늘을 우러러 부르짖음.
- 38) 향수(享壽) : 오래 사는 복을 누림.
- 39) 백수풍신(白首風神) : 머리가 센 늙은이의 점잖고 위엄 있는 풍채.
- 40) 시하(侍下) : 부모나 조부모를 모시고 있는 처지, 또는 그런 처지의 사람.
- 41) 만분일(萬分一) : 만분의 일.
- 42) 의지(依支) : 다른 것에 몸을 기댈, 또는 그렇게 하는 대상, 다른 것에 마음을 기대어 도움을 받음, 또는 그렇게 가는 대상.
- 43) 연기(年紀) : 대강의 나이.
- 44) 장성(長成) : 자라서 어른이 됨.
- 45) 길월(吉月) : 운이 좋고 상서로운 달.
- 46) 양신(良辰) : 좋은 계절, 사랑을 처음 맺게 되는 좋은 시기.
- 47) 택일(擇日) : 어떤 일을 치르거나 길을 떠나거나 할 때 운수가 좋은 날을 가려서 고름.또는 그날.
- 48) 혼수(婚需) : 혼인에 드는 물품, 혼비(婚費)
- 49) 금안(金鞍) : 금으로 꾸민 안장.
- 50) 준마(駿馬) : 빠르게 잘 달리는 말.
- 51) 홍선(紅扇) : 붉은 색깔의 부채.
- 52) 주마가편(走馬加鞭) : 달리는 말에 채찍질한다는 뜻으로 잘하는 사람을 더욱 장려함을 이르는 말.
- 53) 극락(極樂) : 아미타불이 살고 있는 정토(淨土)로 괴로움이 없으며 지극히 안락하고 자유로운 세상을 이른다.인간 세계에서 서쪽으로 10만억 불토(佛土)를 지난 곳에 있다고 전해진다.
- 54) 주인출영(主人出迎) : 신랑이 신부 집에 당도하여 주인이 신랑을 맞이하는 것.
- 55) 납폐(納幣) : 혼인할 때에, 사주단자의 교환이 끝난 후 정혼이 이루어진 증거로 신랑 집에서 신부 집으로 예물을 보내는 것, 또는 그 예물.보통 밤에 푸른 비단과 붉은 비단을 혼서와 함께 함에 넣어 신부 집으로 보낸다.
- 56) 서동부서(婿東婦西) : 사위는 동편에 머느리는 서편에, 곧 남자는 동쪽에 여자는 서쪽에 선다는 뜻.
- 57) 교배례(交拜禮) : 전통 결혼식에서 신랑과 신부가 서로 절을 하는 예식.
- 58) 부선재배(婦先再拜) : 신부가 먼저 두 번 절을 한다.
- 59) 서답일배(婿答一拜) : 신랑이 신부에 답하여 한 번 절을 하다.
- 60) 진주진찬(進酒進餐) : 술과 안주를 내어가다.
- 61) 거음(舉飲) : 술을 마시다.
- 62) 거찬(舉餐) : 안주를 먹다.혼례 시 신랑이 목을 뒤집은 후 안주로 먹는 것을 이른다.
- 63) 월노승(月老繩) : 사주단자에 신랑의 생년월일시를 간지에 맞게 백지에 내려쓰고 왼쪽부터 다섯 번 접어서 봉투에 넣고 봉투는 근본을 세 번 씌우고 싸릿대를 잘게 쪼개 그 사이에 끼운 다음 청홍실로 상

하 전후로 길게 늘어 감아 넘기고, 파란색이 겹으로 나오도록 매듭 없이 매는데 이것이 부부의 인연을 맺었다는 월노승이라 한다.

64) 자자손손(子子孫孫) : 자손의 여러 대(代).

65) 번연(蕃衍) : 번성하다.

66) 암축(暗祝) : 신에게 마음 속으로 기원함.

67) 일희일비(一喜一悲) : 한편으로는 기뻐하고 한편으로는 슬퍼함.또는 기쁨과 슬픔이 번갈아 일어남.

68) 시비(侍婢) : 곁에서 시중을 드는 계집종.

69) 옥안(玉顏) : 잘생기고 환한 얼굴.

70) 설색화용(雪色花容) : 눈처럼 흰 살갓과 꽃처럼 고운 얼굴이라는 뜻으로, 미인의 용모를 이르는 말이다.

71) 월궁항아(月宮姮娥) : 전설에서, 달에 있는 궁에 산다는 선녀를 이르는 것으로 견줄 만한 사람이 없을 정도로 아름다운 여자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72) 요조숙녀(窈窕淑女) : 말과 행동이 품위가 있으며 양전하고 정숙한 여자.

73) 호기(豪氣) : 씩씩하고 호방한 기상.

74) 금침(衾枕) : 이부자리와 베개를 아울러 이르는 말.

75) 섬섬옥수(纖纖玉手) : 가냘프고 고운 여자의 손을 이르는 말.

76) 동금(同衾) : 동침(同寢).

77) 칠월칠석(七月七夕) : 칠석날, 음력으로 칠월 초이렛날의 밤.이때에 은하의 서쪽에 있는 직녀와 동쪽에 있는 견우가 오작교에서 일 년에 한 번 만난다는 전설이 있다.

78) 귀비(貴妃) : 양귀비를 이르는 말, 중국 당나라 현종(玄宗)의 비(妃)(719~756)로 이름은 태진(太眞).춤과 음악에 뛰어나고 총명하여 현종의 총애를 받았으나 안사의 난 때 살해당하였다.

79) 초패왕(楚霸王) : 항우를 달리 이르는 말, 그는 중국 진(秦)나라 말기의 무장(B.C.232~B.C.202)으로 이름은 적(籍), 우는 자(字)이다.숙부 항량(項梁)과 함께 군사를 일으켜 유방(劉邦)과 협력하여 진나라를 멸망시키고 스스로 서초(西楚)의 패왕(霸王)이 되었다.그 후 유방과 패권을 다투다가 해하(垓下)에서 포위되어 자살하였다.

80) 하해(河海) : 큰 강과 바다를 아울러 이르는 말.

81) 만복(萬福) : 온갖 복.

82) 초례(醮禮) : 전통적으로 치르는 혼례식.

83) 일거월저(日居月諸) : 쉬지 아니하고 가는 세월.

84) 한문(寒門) : 가난하고 문벌이 없는 집안.

85) 화기(和氣) : 따스하고 화창한 기운.

86) 대방(大邦) : 큰 나라.

87) 문벌(門閥) : 대대로 내려오는 그 집안의 사회적 신분이나 지위.

88) 예의염치(禮義廉恥) : 예절, 의리, 청렴, 부끄러움을 아는 태도.

89) 온순지덕(溫順之德) : 온순한 덕.

90) 정정지행(定情之行) : 부부가 정을 맺는 행동.

91) 부창부수(夫唱婦隨) : 남편이 주장하고 아내가 이에 잘 따름, 또는 부부사이의 그런 도리.

92) 조반(朝飯) : 아침 밥.

- 93) 석죽(夕粥) : 저녁 죽.
- 94) 생남(生男) : 남아를 낳다.
- 95) 생녀(生女) : 여아를 낳다.
- 96) 삼천교(三遷教) : 맹모삼천지교(孟母三遷之教)를 이르는 말로, 맹자의 어머니가 맹자의 교육을 위하여 세 번이나 이사했음을 이르는 말이다.
- 97) 좌제우설(左提右挈) : 왼쪽으로 끌고 오른쪽으로 이끈다는 뜻으로, 서로 의지하여 도움을 이르는 말.
- 98) 전금후거(前襟後裾) : 앞세우고 뒤세워서.
- 99) 춘추(春秋) : 어른의 나이를 높여 이르는 말.
- 100) 조물(造物) : 조물주.
- 101) 금음(琴音) : 거문고 소리.
- 102) 가운(家運) : 집안의 운수.
- 103) 조실부모(早失父母) : 어려서 부모를 여읜.
- 104) 실가지락(室家之樂) : 부부사이의 화목한 즐거움.
- 105) 남혼여가(男婚女嫁) : 아들은 장가들고 딸은 시집간다는 뜻으로, 자녀의 혼인을 이르는 말.
- 106) 귀어허지(歸於虛地) : 버려둔 빈 땅에 돌아간다는 뜻으로, 수고롭기만 하고 헛노릇이 됨을 이르는 말.
- 107) 환생(還生) : 다시 살아남.
- 108) 천생연분(天生緣分) : 하늘이 정해준 연분.
- 109) 백년해로(百年偕老) : 부부가 되어 한평생을 사이좋게 지내고 즐겁게 함께 늙음.
- 110) 여한(餘恨) : 풀지 못하고 남은 원한.
- 111) 범백사(凡百事) : 갖가지의 모든 일, 또는 온갖 일.
- 112) 삼시(三時) : 아침, 점심, 저녁의 세 끼니.또는 그 끼니때.
- 113) 철철이 : 돌아오는 철마다.
- 114) 방아짓기 : 방아질, 즉, 곡식 따위를 찧거나 뺨는 것.
- 115) 어둑 : 많이의 옛말.
- 116) 태고(太古) : 아주 먼 옛날.
- 117) 환과고독(鰥寡孤獨) : 늙어서 아내 없는 사람, 젊어서 남편 없는 사람, 어려서 아버지 없는 사람, 늙어서 자식 없는 사람을 아울러 이르는 말로 외롭고 의지할데 없는 처지를 뜻한다.
- 118) 진황(眞況) : 참된 상황.
- 119) 사궁(四窮) : 네 가지의 궁한 처지라는 뜻으로, 늙은 할아버지와 늙은 할머니, 부모 없는 어린이, 자식 없는 늙은이를 통틀어 이르는 말이다.
- 120) 음실(陰室) : 햇빛이 잘 들지 않는 음침한 방, 눈에 잘 띄지 않는 방.
- 121) 운모병풍(雲母屏風) : 운모로 만든 병풍, 운모란 화강암 가운데 많이 들어 있는 규산염 광물의 하나이다.
- 122) 동덤 : 동덩, 큰 북, 장구, 가야금 따위를 두드리거나 타는 소리.
- 123) 봉황곡(鳳凰曲) : 조선 시대의 가사(歌辭)로 남녀의 금실을 노래한 작품으로, 이름은 중국의 사마상여가 지은 <봉구황곡(鳳求凰曲)> 을 본떠서 지었다.



- 124) 옥경(玉京) : 하늘 위에 옥황상제가 산다고 하는 가상적인 서울.
- 125) 하강(下降) : 높은 곳에서 아래로 향하여 내려옴, 신선이 속계로 내려오거나 웃어른이 아랫자리로 내려옴.
- 126) 추무(秋霧) : 가을의 안개.
- 127) 엽낙시(葉落時) : 잎이 떨어질 때에.
- 128) 신농씨(神農氏) : 중국의 옛 전설 속의 제왕으로 삼황(三皇)의 한 사람으로 농업·의료·악사(樂師)의 신, 주조(鑄造)와 양조(釀造)의 신이며, 또 역(易)의 신, 상업의 신이라고도 한다.
- 129) 제중신편(濟衆新編) : 조선 정조 때에 강명길이 지은 의서(醫書)로 『동의보감』을 비롯한 고금의 의서를 참고로 하여 지었으며 제1~제7 권에는 신체 각 부의 질병에 대한 증상과 약방문을 적고, 제8권에는 중요한 약물의 효능을 4언 4구의 약성가로 짓고 구절마다 약명을 한글로 표기하였다. 8권 5책의 목판본이다.
- 130) 상고(詳考) : 꼼꼼하게 따져서 검토하거나 참고함.
- 131) 청낭(靑囊) : 청낭비결(靑囊秘訣), 중국 후한 말기의 명의(名醫)인 화타(華陀)가 지은 의서로 오늘날 전하지 않는다.
- 132) 금단(金丹) : 신선이 만든다고 하는 장생불사의 영약, 선단(仙丹)이라고도 한다.
- 133) 불로장생(不老長生) : 늙지 아니하고 오래 삶.
- 134) 천추만세(千秋萬歲) : 천만년의 긴 세월, 오래 살기를 축수하는 말.
- 135) 장생불사(長生不死) : 오래도록 살고 죽지 아니함.
- 136) 육갑(六甲) : 육십갑자.
- 137) 길흉화복(吉凶禍福) : 길흉과 화복을 아울러 이르는 말.
- 138) 피흉추길(避凶趨吉) : 흉한 일을 피하고 좋은 일에 나아감.
- 139) 피흉취길(避凶取吉) : 흉은 피하고 길은 취하다.
- 140) 복록(福祿) : 타고난 복과 벼슬아치의 녹봉이라는 뜻으로, 복되고 영화로운 삶을 이르는 말.
- 141) 수원수구(誰怨誰咎) : 누구를 원망하고 누구를 탓하겠냐는 뜻으로, 남을 원망하거나 탓할 것이 없음을 이르는 말.
- 142) 막비(莫非) : 아닌게 아니라를 한문투로 이르는 말.
- 143) 유인최귀(惟人最貴) : 오직 사람이 가장 귀하다.
- 144) 최귀(最貴) : 가장 귀하다.
- 145) 삼강오륜(三綱五倫) : 유교의 도덕에서 기본이 되는 세 가지의 강령과 지켜야 할 다섯 가지의 도리를 일컫는다.
- 146) 인의예지(仁義禮智) : 유학에서, 사람이 마땅히 갖추어야 할 네 가지 성품. 곧 어질고, 의롭고, 예의 바르고, 지혜로움을 이르는 말이다.
- 147) 효제충신(孝悌忠信) : 어버이에 대한 효도, 형제끼리의 우애, 임금에 대한 충성과 벗 사이의 믿음을 통틀어 이르는 말이다.
- 148) 염치(廉恥) : 체면을 차릴 줄 알며 부끄러움을 아는 마음.
- 149) 미물(微物) : 작고 변변치 않은 물건. 인간에 비하여 보잘것없는 것이라는 뜻으로, ‘동물’을 이르는 말, 또는 변변치 못한 사람을 낮잡아 이르는 말.
- 150) 하직(下直) : 죽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151) 생동(生動) : 생기 있게 살아 움직임.
- 152) 한식절(寒食節) : 우리나라 명절의 하나로 동지에서 105일째 되는 날로서 4월 5일이나 6일쯤이 되며, 민간에서는 조상의 산소를 찾아 제사를 지내고 사초(莎草)하는 등 묘를 돌아본다.
- 153) 탐화봉접(探花蜂蝶) : 꽃을 찾아다니는 벌과 나비라는 뜻으로, 사랑하는 여자를 그리워하여 찾아가는 남자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 154) 하례(賀禮) : 축하하여 예를 차림.
- 155) 웅창자화(雄唱雌和) : 새의 암컷과 수컷이 의젓게 지저귀며, 서로 손이 척척 맞아 일을 잘해 나감을 이른다.
- 156) 구구 : 닭이나 비둘기 등의 새가 우는 소리.
- 157) 상낙(相樂) : 서로 즐기다.
- 158) 북망산(北邙山) : 무덤이 많은 곳이나 사람이 죽어서 묻히는 곳을 이르는 말로 중국의 베이망 산에 무덤이 많았다는 데서 유래한다.
- 159) 유대(留待)꾼 : 포도청에 속하여 상여를 메던 인부.
- 160) 회가(回駕) : 수레·가마 따위를 타고 돌아간다는 뜻으로, 윗사람이 외출하였다가 집으로 돌아오거나 돌아감을 이르는 말이다.
- 161) 비금(飛禽) : 날짐승.
- 162) 내왕(來往) : 오고 감, 서로 사귀어 오고 가고 함.
- 163) 송정(松亭) : 솔숲 사이에 지은 정자.
- 164) 부공새 : 부엉새의 방언.
- 165) 웅비(雄飛) : 기운차고 용기 있게 활동함.
- 166) 종자(從者) : 남에게 종속되어 따라다니는 사람.
- 167) 양류(楊柳) : 버드나무.
- 168) 행화촌(杏花村) : 살구꽃이 많이 피는 마을.
- 169) 비거비래(飛去飛來) : 날아가고 날아옴.
- 170) 구십춘광(九十春光) : 봄의 석달 동안, 석 달 동안의 화창한 봄 날씨.
- 171) 상서(祥瑞) : 복되고 길할 일이 일어날 조짐이 있다.
- 172) 자웅(雌雄) : 암수.
- 173) 현상호의(玄裳縞衣) : 검은 치마와 흰 저고리라는 뜻으로, ‘학’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174) 노송(老松) : 늙은 소나무, 편백.
- 175) 호호망망(浩浩茫茫) : 바다나 호수 따위가 끝없이 넓고 멀어서 아득하다.
- 176) 창파(滄波) : 넓고 큰 바다의 맑고 푸른 물결.
- 177) 벽계옹(碧溪翁) : 신선(神仙).
- 178) 장한가(長恨歌) : 중국 당나라 때에 백거이가 지은 서사시로 당나라 현종이 양귀비를 잃은 한을 노래한 것이다.모두 칠언(七言) 120구로 되어 있다.
- 179) 재천원작원앙(在天願作鴛鴦鳥) : 원작(原作)의 재천원작비익조(在天願作比翼鳥), 하늘에서는 비익조 되기를 원하고.
- 180) 재지원위연이지(在地願爲連理枝) : 땅에서는 연리지 되기를 원하네.
- 181) 상처(喪妻) : 아내의 죽음을 당함.

- 182) 새김생 : 날짐승.
- 183) 일락서산(日落西山) : 해가 서쪽 산으로 지다.
- 184) 초회왕(楚懷王) : 초나라의 회왕을 이르는 말.
- 185) 고혼(孤魂) : 의지할 곳 없이 떠돌아다니는 외로운 넋.
- 186) 개화절(開花節) : 꽃이 피는 계절.
- 187) 금의공자(金衣公子) : 꿩꼬리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188) 미미(微微) : 보잘것 없이 아주 작다.
- 189) 천중절(天中節) : 천중가절, 즉, 좋은 명절이라는 뜻으로, ‘단오’를 달리 이르는 말.
- 190) 수양(垂楊) : 수양버들.
- 191) 추천(鞦韆) : 그네.
- 192) 반선희(半仙戲) : 그네.
- 193) 오작(烏鵲) : 까마귀와 까치.
- 194) 정회(情懷) : 생각하는 마음, 또는 정과 회포를 아울러 이르는 말.
- 195) 명년(明年) : 올해의 다음, 즉, 내년.
- 196) 금정(金正) : 가을의 신(神).
- 197) 춘남(春南) : 봄에는 남쪽으로.
- 198) 추북(秋北) : 가을에는 북쪽으로.
- 199) 상탁(床卓) : 제상과 향탁을 아울러 이르는 말.
- 200) 애통(哀痛) : 슬퍼하고 가슴 아파함.
- 201) 백초(百草) : 온갖 풀.
- 202) 정기(精氣) : 천지 만물을 생성하는 원천이 되는 기운.
- 203) 작작(灼灼) : 꽃이 핀 모양이 몹시 화려하고 찬란하다.
- 204) 삼경취황(三徑就荒) : 세갈래 갈라진 뜰 안은 잡초가 무성하다.
- 205) 송국유존(松菊猶存) : 소나무와 국화는 아직도 꽃꽂하다.
- 206) 진처사(晉處士) : 도연명을 이른다.
- 207) 유수(流水) : 흐르는 물.
- 208) 세시(歲時) : 설, 한해의 절기나 달, 계절에 따른 때.
- 209) 가절(佳節) : 좋은 시절이나 계절
- 210) 만호(萬戶) : 아주 많은 집.
- 211) 천운(天運) : 하늘이 정한 운명.
- 212) 송구영신(送舊迎新) : 묵은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음.
- 213) 기복(祈福) : 복을 빚.
- 214) 치레 : ‘치러 내는 일’ 또는 ‘겉으로만 꾸미는 일’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
- 215) 가암 : 옷감.
- 216) 삼삼오오(三三五五) : 서너 사람 또는 대여섯 사람이 떼를 지어 다니거나 무슨 일을 함.또는 그런 모양.
- 217) 세환(世患) : 세상살이에서 생기는 근심과 걱정.
- 218) 작반(作伴) : 동행자나 동무로 삼음.

- 219) 세시복랍(歲時伏臘) : 설, 삼복(三伏), 납향(臘享)을 아울러 이르는 말.
- 220) 팽양포고(烹羊炮羔) : 설과 같은 명절에 양, 염소 따위를 잡아 잔치를 베풀.
- 221) 송구영신(送舊迎新) : 묵은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음.
- 222) 춘포(春布) : 비교적 굵은 면사를 날실로 하고 굵은 모시실을 씨실로 하여 짠 천.뽀뽀하고 두꺼우며 질긴데, 봄철 옷감으로 쓴다.
- 223) 상복(喪服) : 상중에 있는 상제나 복인이 입는 예복.삼베로 만드는데, 바느질을 곱게 하지 않는다.
- 224) 하지일(夏至日) : 이십사절기의 하나로 망종과 소서 사이에 들며, 양력 6월 21일경으로, 북반구에서 는 낮이 가장 길고 밤이 가장 짧다.
- 225) 동지야(冬至夜) : 동지날 밤.
- 226) 만단(萬端) : 수없이 많은 갈래나 토막으로 얼크러진 일의 실마리, 여러 가지나 온갖.
- 227) 전전반측(輾轉反側) : 누워서 몸을 이리저리 뒤척이며 잠을 이루지 못함.
- 228) 영결(永訣) : 죽은 사람과 산 사람이 서로 영원히 헤어짐.
- 229) 문왕(文王) : 주나라 문왕(文王).기원전 12세기 중국 주(周)나라의 창건자인 무왕(武王)의 아버지이다.성은 희(姬).이름은 창(昌)이다.
- 230) 억조창생(億兆蒼生) : 수많은 백성.
- 231) 사해만방(四海萬邦) : 온 세상, 모든 나라.
- 232) 환과고독(鰥寡孤獨) : 늙어서 아내 없는 사람, 젊어서 남편 없는 사람, 어려서 아버지 없는 사람, 늙어서 자식 없는 사람을 아울러 이르는 말로 외롭고 의지할 데 없는 처지를 뜻한다.
- 233) 사궁인(四窮人) : 사궁(四窮)이란 네 가지의 궁한 처지라는 뜻으로, 늙은 할아버지와 늙은 할머니, 부모 없는 어린이, 자식 없는 늙은이를 통틀어 이르는 말이다.
- 234) 옥지무당(玉卮無當) : 옥으로 만든 술잔이라도 밑이 없으면 쓸데없다는 뜻으로, 쓸데없는 보배를 이르는 말이다.
- 235) 공경(恭敬) : 공손히 받들어 모심.
- 236) 백수(白首) : 하얗게 센 머리.
- 237) 비회(悲懷) : 마음속에 서린 슬픈 시름이나 회포.
- 238) 양안(兩眼) : 양쪽의 두 눈.
- 239) 양천통곡(仰天痛哭) : 하늘을 쳐다보며 몹시 슬피 울.
- 240) 만득(晩得) : 늙어서 자식을 낳음.
- 241) 금옥(金玉) : 금과 옥을 아울러 이르는 말로 아주 귀중한 것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것이다.
- 242) 일월성신(日月星辰) : 해와 달과 별을 통틀어 이르는 말.
- 243) 이십팔수(二十八宿) : 천구(天球)를 황도(黃道)에 따라 스물여덟으로 등분한 구획.또는 그 구획의 별자리.
- 244) 두호(斗護) : 남을 두둔하여 보호함.
- 245) 동방삭 : 동방삭(東方朔, 기원전 154년 - 기원전 93년)을 이르는 말.중국 전한(前漢)의 문인으로 자는 만칭(曼倩)이다.해학·변설(辯舌)·직간(直諫)으로 이름이 났다.속설에 서왕모의 복숭아를 훔쳐 먹어 장수하였으므로 삼천갑자 동방삭이라고 이른다.
- 246) 곽분양 : 곽분양은 중국 당나라 때의 무장으로 본명은 곽자의(郭子儀, 697~781)다.당 현종 때 안록산의 난을 토벌하는 등 많은 공을 세워 분양왕(汾陽王)에 봉해지고, 살아생전 온갖 부귀와 공명을 누

렸다 전해진다. 어떤 사람을 일컬어 '곽분양 팔자다'라 하면 그가 곽분양처럼 좋은 팔자를 타고난 사람이란 뜻으로 통한다.

247) 삼재팔난(三災八難) : 삼재(三災)'와 '팔난(八難)' 곧 모든 재난. '팔난(八難)'은 여덟 가지의 재난. 곧 배고픔, 목마름, 추위, 더위, 물, 불, 칼, 병란(兵亂)의 여덟 가지의 재난. 혹은 부처를 보지 못하고 불법(佛法)을 들을 수 없는 여덟 가지의 곤란, 즉 지옥(地獄), 축생(畜生), 아귀(餓鬼), 장수천(長壽天), 맹롱음아, 울단월(鬱單月), 세지번총(世智辨聰), 생재불전불후(生在佛前佛後)을 이른다.

248) 공맹도(孔孟道) : 공자와 맹자의 도.

249) 경명(敬命) : 천명(天命)을 삼가 받들.

250) 수신제가(修身齊家) : 몸과 마음을 닦아 수양하고 집안을 다스림.

251) 입신양명(立身揚名) : 출세하여 이름을 세상에 떨침.

252) 감고(甘苦) : 단맛과 쓴맛을 아울러 이르는 말로 즐거움과 괴로움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253) 지부왕(地府王) : 지부의 왕이라는 뜻으로, '염라대왕'을 달리 이르는 말이다.

254) 천지신명(天地神明) : 천지의 조화를 주재하는 온갖 신령.

255) 부지(扶持) : 상당히 어렵게 보존하거나 유지하여 나감을 이르는 말.

256) 의탁(依託) : 어떤 것에 몸이나 마음을 의지하여 맡김.

257) 공부자(孔夫子) : 공자(孔子)를 높여 이르는 말.

258) 요사(夭死) : 요절, 젊은 나이에 죽음.

259) 천우신조(天佑神助) : 하늘이 돕고 신령이 도움. 또는 그런 일.

260) 남루(襤褸) : 옷 따위가 낡아 해지고 차림새가 너저분하다.

261) 고지(叩地) : 몹시 슬퍼서 땅을 치다.

262) 하천(誆天) : 하늘을 향해 울부짖다.

263) 무상(無常) : 모든 것이 덧없음.

264) 유명(幽明) : 어둠과 밝음을 이르는 말, 저승과 이승을 아울러 이르는 말이다.

265) 화락(和樂) : 화평하게 즐기다.

266) 불초(不肖) : 아버지의 덕망이나 유업을 이어받지 못함. 또는 그렇게 못나고 어리석은 사람.

267) 유아무부(幼而無父) : 어려서부터 부모가 안계심을 이르는 말.

268) 만분지일(萬分之一) : 만분의 일.

269) 철천(徹天) : 하늘에 사무친다는 뜻으로, 두고두고 잊을 수 없도록 뼈에 사무침을 이르는 말.

270) 양화(釀禍) : 재앙이나 화근을 빚어냄.

271) 정곡(情曲) : 간곡한 정.

272) 일생일사(一生一死) : 한번 살고 한번 죽는다.

273) 소복(素服) : 하얗게 차려입은 옷, 흔히 상복으로 입는다.

274) 수부귀다남자(壽富貴多男子) : 아들을 많이 낳고 부유하며 오래 사는 복을 이르는 말.

275) 점지 : 신불이 사람에게 자식을 갖게 하여줌, 무엇이 생기는 것을 미리 지시해 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276) 규중(閨中) : 부녀자가 거처하는 곳.

277) 심처(深處) : 깊숙한 곳.

278) 선왕지예(先王之禮) : 선왕의 예.

- 279) 친당(親堂) : 친 부모.
- 280) 사생(死生) : 죽음과 삶.
- 281) 고락(苦樂) : 괴로움과 즐거움.
- 282) 반백년(半百年) : 오십년.
- 283) 일진광풍(一陣狂風) : 한바탕 몰아치는 사나운 바람.
- 284) 일조일석(一朝一夕) : 하루 아침과 하루 저녁이란 뜻으로, 짧은 시일을 이르는 말이다.
- 285) 진속(塵俗) : 지저분하고 어지러운 속세.
- 286) 옥황상제(玉皇上帝) : 천신, 즉 하늘의 신령이라는 의미로, 하늘의 중심, 하늘 자체를 신격화하거나 하늘에 있는 초인적인 신격을 믿음으로써 생겨났다.
- 287) 백옥루(白玉樓) : 문인(文人)이나 묵객(墨客)이 죽은 뒤에 간다는 천상의 누각. 당나라 시인 이하(李賀)가 죽을 때에 천사가 와서 천제(天帝)의 백옥루가 이루어졌으니 이하를 불러 그것을 기록하게 하려 한다고 말했다는 데서 유래한다.
- 288) 상제(上帝) : 하느님.
- 289) 수복(壽福) : 오래 살고 복을 누리는 일.
- 290) 삼산(三山) : 삼신산.
- 291) 십주(十住) : 보살이 수행하는 오십이위(五十二位) 단계 가운데 제11위에서 제20위까지의 단계.
- 292) 기화요초(琪花瑤草) : 옥같이 고운 풀에 핀 구슬같이 아름다운 꽃.
- 293) 상천(上僊) : 하늘로 올라가 선인(仙人)이 됨.
- 294) 적송자(赤松子) : 신농씨 때에, 비를 다스렸다는 신선의 이름.
- 295) 진시왕(秦始皇) : 중국 진(秦)나라의 제1대 황제(B.C.259~B.C.210). 이름은 정(政). 기원전 221년에 중국을 통일하고 스스로 시황제라 칭하였다. 중앙 집권을 확립하고, 도량형·화폐의 통일, 만리장성의 증축, 아방궁의 축조, 분서갱유 따위로 위세를 떨쳤다.
- 296) 불사약(不死藥) : 먹으면 죽지 않고 오래 살 수 있다는 약.
- 297) 지부(地府) : 저승을 이르는 말.
- 298) 지부국(地府國) : 저승 세계.
- 299) 사창(紗窓) : 사불이나 깃으로 바른 창.
- 300) 소슬 : 소슬하다, 으스스하고 쓸쓸하다.
- 301) 고래희(古來稀) : 예로부터 매우 드뭄.
- 302) 왕손귀불귀(王孫歸不歸) : 떠나간 이는 다시 올지 어떨지.
- 303) 영욕(榮辱) : 영예와 치욕을 아울러 이르는 말.
- 304) 오복(五福) : 유교에서 이르는 다섯 가지의 복을 뜻하는 말로 보통 수(壽), 부(富), 강녕(康寧), 유효덕(攸好德), 고종명(考終命)을 이르는데, 유효덕과 고종명 대신 귀(貴)와 자손중다(子孫衆多)를 꼽기도 한다.
- 305) 겸전(兼全) : 여러 가지를 완전하게 갖추.
- 306) 붕성지통(崩城之痛) : 성이 무너질 만큼 큰 슬픔이라는 뜻으로, 남편이 죽은 슬픔을 이르는 말.
- 307) 노이무부(老而無夫) : 늙어서 남편이 없다.
- 308) 사불명목(死不瞑目) : 근심이나 한이 남아 있어 죽어서도 눈을 편히 감지 못함.
- 309) 벽해(碧海) : 짙푸른 바다.

- 310) 상전(桑田) : 뽕나무 밭.
- 311) 의구(依舊) : 옛날 그대로 변함이 없다.
- 312) 양춘(陽春) : 따뜻한 봄.
- 313) 초목군생(草木群生) : 모든 생물.
- 314) 난만(爛漫) : 꽃이 활짝 많이 피어 화려함.
- 315) 호접(胡蝶) : 나비.
- 316) 둔취(屯聚) : 여러 사람이 한 곳에 모여 있음.
- 317) 가기(佳期) : 좋은 계절.
- 318) 도원(桃園) : 무릉도원.
- 319) 어천만사(於千萬事) : 모든 일.
- 320) 오매불망(寤寐不忘) : 자나 깨나 잊지 못함.
- 321) 여광여취(如狂如醉) : 너무 기쁘거나 감격하여 미친 듯도 하고 취한 듯도 하다는 뜻으로, 이성을 잃은 상태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322) 허수 : 허수하다, 마음이 허전하고 서운하다.
- 323) 취처(娶妻) : 장가를 들어 아내를 얻음.
- 324) 백년가약(百年佳約) : 젊은 남녀가 부부가 되어 평생을 같이 지낼 것을 굳게 다짐하는 아름다운 언약.
- 325) 백오(白鳥) : 중국에서, 상서로운 징조를 뜻한다는 상상 속의 흰 까마귀.진나라 시황제가 인질로 삼았던 연나라 태자 단(丹)에게 까마귀 머리가 하얗게 되고 말에 뿔이 나면 고국으로 돌려보내 주겠다고 약속하였는데, 실제로 그러한 일이 일어났다는 데서 유래한다.있을 수 없는 일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 326) 금슬지락(琴瑟之樂) : 부부간의 사랑을 뜻하는 말이다.
- 327) 속현(續絃) : 거문고와 비파의 끊어진 줄을 다시 잇는다는 뜻으로, 아내를 여윈 뒤에 다시 새 아내를 맞는 일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 328) 화촉(華燭) : 빛깔을 들인 밀초로 흔히 혼례식때 쓰인다.
- 329) 비감(悲感) : 슬픈 느낌.
- 330) 혈후 : 대수롭지 아니하다.
- 331) 전안석(奠雁席) : 전안(奠雁)이란 혼례 때, 신랑이 기러기를 가지고 신부 집에 가서 상 위에 놓고 절을 하는 행동이나 또는 그런 예(禮)를 뜻한다.이때, 산 기러기를 쓰기도 하나, 대개 나무로 만든 것을 쓴다.
- 332) 납폐(納幣) : 혼인할 때에, 사주단자의 교환이 끝난 후 정혼이 이루어진 증거로 신랑 집에서 신부 집으로 예물을 보내는 행동이나 또는 그 예물을 뜻한다.보통 밤에 푸른 비단과 붉은 비단을 혼서와 함께 함에 넣어 신부 집으로 보낸다.
- 333) 친영(親迎) : 육례의 하나로 신랑이 신부의 집에 가서 신부를 직접 맞이하는 의식이다.
- 334) 사단칠정(四端七情) : 사단(四端)과 칠정(七情)을 아울러 이르는 말로 사단(四端)이란 사람의 본성에서 우러나오는 네 가지 마음씨를 뜻하는 것으로 맹자 에서 유래한 것으로, 인(仁)에서 우러나오는 측은지심, 의(義)에서 우러나오는 수오지심, 예(禮)에서 우러나오는 사양지심, 지(智)에서 우러나오는 시비지심을, 칠정(七情)이란 사람의 일곱 가지 감정, 즉, 기쁨(喜)·노여움(怒)·슬픔(哀)·즐거움(樂)



·사랑(愛)·미움(惡)·욕심(欲), 또는 기쁨(喜)·노여움(怒)·근심(憂

335) 슬우지탄 : 슬퍼서 탄식하다.

336) 감지(甘旨) : 맛이 좋은 음식.

337) 구고(舅姑) : 시부모.

338) 직임(織紝) : 길쌈하는 일, 또는 그런 사람.

339) 장사(葬事) : 죽은 사람을 땅에 묻거나 화장하는 일.

340) 혹어후처(惑於後妻) : 후처에게 흠뻑 빠짐.

341) 처자(妻子) : 부인과 자식.

342) 예양(豫讓) : 중국 진(晉)나라의 의사로 자신이 섬기던 지백(智伯)이 조양자(趙襄子)에게 피살되자 복수를 시도하다가 실패하여 자살하였다.

343) 칠신위려(漆身爲厲) : 몸에 옷칠을 하여 문둥이가 되다.

344) 탐탄위아(香炭爲啞) : 숯을 삼켜 병어리가 되다.

345) 행걸어시(行乞於市) : 시장에서 구걸을 행하다.

346) 오기(吳起) : 중국 춘추전국시대의 병법가로 위(衛)나라 사람이며, 증자(曾子)에게 배우고 노군(魯君)을 섬겼다. 제(齊)나라가 노나라를 침공하였을 때 노나라는 그를 장군으로 삼으려고 하였다. 그는 제나라 여자를 아내로 삼고 있었으므로 의심을 받는다고 아내를 죽여 충성을 나타낸 뒤, 노나라 장군으로서 제나라 군대를 격파하였다.

347) 노(魯) : 기원전 1055년에 주(周)나라 무왕의 아우인 주공(周公) 단(旦)이 지금의 산둥성(山東省) 곡부(曲阜)에 도읍하여 세운 나라로 기원전 249년 34대 경공(頃公) 때에 초(楚)나라에 멸망하였다.

348) 분상(奔喪) : 먼 곳에서 부모가 돌아가신 소식을 듣고 급히 집으로 돌아감.

349) 참소(讒訴) : 남을 헐뜯어서 죄가 있는 것처럼 꾸며 윗사람에게 고하여 바침.

350) 삼종지도(三從之道) : 여자가 따라야 할 세 가지 도리를 이르던 말로 어려서는 아버지를, 결혼해서는 남편을, 남편이 죽은 후에는 자식을 따라야 한다는 것이. 『예기』의 의례(儀禮)에 나오는 말이다.

351) 적인종부(適人從夫) : 시집가서는 남편을 따라야 함을 뜻하는 말이다.

352) 생즉동침(生卽同寢) : 살아있을 때에는 잠자리를 함께하여야 한다.

353) 사즉동혈(死卽同穴) : 죽은 후에는 한 무덤에 묻혀야 한다.

354) 열녀부경이부(烈女不更二夫) : 열녀는 두 지아비를 섬기지 않는다.

355) 수절(守節) : 정절을 지키.

356) 측은지심(惻隱之心) : 사단(四端)의 하나로 불쌍히 여겨 언짢아하는 마음을 이른다.

357) 부부유별(夫婦有別) : 오륜(五倫) 중의 하나로 남편과 아내 사이의 도리는 서로 침범하지 않음에 있음을 이른다.

358) 지중(至重) : 더할 수 없이 귀중하다.

359) 고축(告祝) : 천지신명에게 고하여 뵈.

360) 비도산고(悲悼酸苦) : 손아랫사람의 죽음을 당해 몹시 슬프고 마음이 쓰림.

361) 부자승감(不自勝堪) : 스스로 많은 느낌을 이기지 못함.

362) 논박(論駁) : 어떤 주장이나 의견에 대하여 그 잘못된 점을 조리 있게 공격하여 말함.

363) 등선(登仙) : 존귀한 사람의 죽음을 이르는 말.

364) 정구지역(井臼之役) : 물을 길고 절구질하는 일이라는 뜻으로, 살림살이의 수고로움을 이르는 말



이다.

365) 군속(窘束) : 묶여 있는 것처럼 움짱달썩할 수 없게 어렵다.

366) 함토(呑吐) : 머금고 뱉음, 자유자재로 출입하게 함.

367) 방성통곡(放聲痛哭) : 큰 소리로 몹시 슬프게 곡을 함.

368) 천륜(天倫) : 부모와 자식 간에 하늘의 인연으로 정하여져 있는 사회적 관계나 혈연적 관계, 부모 형제 사이에서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를 뜻한다.

369) 부화부순(夫和婦順) : 부부 사이가 화목함.

370) 연맥(緣脈) : 이어져 있는 맥락.

본자료는 행정안전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의 국가DB사업으로 구축된 재산입니다.

담양군의 공식적인 허가 없이 이 문서의 일부 또는 전체를 복제, 전송, 배포하거나 변경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